2011.04.27 NO.107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행복한 여성 세상 우리 곁으로 성큼

P21~38

중점기획 태풍·지진·테러, 반복 훈련으로 '안전 한국' 지킨다 P14~19

조계종 영담 스님 "31년전 10·27 법난의 아픔 이젠 치유해야" P8~9

모두 누려라, 취업 모두 웃어라, 여성

여성이여, 직장인으로 다시 훨훨 날아라!

잠시 접었두었던 당신의 능력 다시 발휘해보세요.
직장인으로 가슴 부푼 당신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장인으로
다시 시작하고싶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직장에서 빛나는 당신의 내일, 훨훨 펼쳐보세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나보세요

대표전화 **일**을 **구**해 드립니다

1544-1199

직업상담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취업정보 제공
-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직업교육

- 무료 직업 교육
- 새일여성인턴제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특화교육

취업알선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정보 DB 관리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일과 육아 사이… 행복의 조건

이화순
종근당고촌재단 교육문화국장

얼마 전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남편의 기고문이 실린, 15년 전 내가 다녔던 직장의 사보를 찾았다.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아이들이 학업에 매달려 가족의 유대감이 느슨해지던 요즘 그 글은 정말 새롭게 다가왔다.

15년 전을 돌이켜보니, 신혼 5년을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동생, 조카들까지 있는 대가족 속에서 북적대며 살았다. 정말 정신없었던 시간들이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대가는 쉽지 않았다.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사이도 없이 직장과 가사, 육아 사이에서 곡예를 하는 것 같았다.

남편도 그 기고문에서 "치열함을 요구하는 우리의 삶을 뿌리칠 수 없지만 그래도 여유 있고, 넉넉하고, 건강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와 남편은 차례로 파김치가 되었고, 갈등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생명력이 꿈틀대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그때가 행복의 절정기였다고 여겨진다.

사실 결혼한 부부에게 분신과 같은 자녀를 보는 것은 세상 최고의 축복이자 환희이다. 그런데도 그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인 난관이 크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후배들이 적지 않다. "선배, 아이를 이 괴로운 세상에 내던지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못 낳겠어요. 집장만도 힘들지, 사교육비도 엄청나지…"

부부에게 자녀를 보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환희이다. 그런데도 그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의 난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배려가 절실하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소되고 여성들도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파견직인 어느 후배로부터는 "임신했다고 하니까 회사도 어려운데 나오지 말라고 해요. 여자들도 남자들과 견주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은 1960년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이 2008년 1.19명으로 낮아졌다. 2010년 1.22명으로 높아졌지만 OECD 평균인 1.6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안간힘을 쓰면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들의 대상에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배제되어 있다.

중산층을 포함시킨 전 계층이 정부의 저출산대책의 목표 계층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저출산 원인 중 주 원인은 사교육비 등 자녀양육비용이다. 고비용 발생에 대한 근본 원인 치유가 부족할 뿐 아니라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의 배려와 오픈 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된다.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기본 인프라의 양과 질적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의 아이를 위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아이를 낳고 싶어하며,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 저출산 문제도 해소되고 여성들은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G

Contents NO.107 2011.04.27 통권 208호

기획특집

여성이 OK 할 때까지 정책보따리 쏟아진다

아이냐 일이냐 택일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이 육아와 일 둘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아이와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표지 이야기 어린 시절 동시통역사를 꿈꾸었던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황경화씨. 그는 서울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사진 · 장은주 기자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4.2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40

50

54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8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정부의 외교력에 박수를!

"1백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에 관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외규장각 도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반환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빠른 시일 내 나머지 분량도 반환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으면 합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은 정부의 외교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협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3국 장애인 미술작가 존경스러워

"'2011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3국의 장애인 미술작가들이 미술교류전을 통해 우의를 다진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해도 열정적인 예술혼으로 장애의 벽을 넘어, 수준 높은 훌륭한 작품을 탄생시키고 국제교류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만들기까지 하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장애인 미술교류전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많은 나라의 미술인들이 참가해 우의와 화합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재하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녹색직업' 소개 정보 반가워

"'녹색시대 녹색직업이 뜬다' 기사를 반갑게 읽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자, 유비쿼터스 도시기획자, 에너지진단사 등 조금은 생소하지만 앞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선도해 나갈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도서 〈중고생을 위한 녹색직업〉도 발간한다니 어린 학생들도 녹색성장에 보다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미라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에코맘, 나도 당장 실천해 볼까

"'에코맘 실천법'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닌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는 자발적인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겁게 에코라이프를 실천했을 때 비로소 환경도 살리고 가계비도 절약하고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무심코 꽂아 놓은 플러그부터 당장 빼야겠습니다."

김덕희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자전거열풍과 더불어 진흥책 늘렸으면

"'자전거 물결… 대한민국이 달린다' 기사를 읽으면서 자전거 열풍을 실감했습니다.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 보전과 녹색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늘리고 자전거 무상대여를 하는 등 자전거 타기 진흥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점순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이 기사, 아쉬워요

"에코맘 단체 설명 있었으면"

'에코맘 실천법' 기사를 보면 에코맘코리아에서 추천한 '에코맘' 정종숙씨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재활용과 분리수거 등을 소개했습니다. 기사 전체 내용이나 단체 명칭으로 보아 에코맘코리아는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생활을 시도하려는 주부들 모임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의 성격이나 하는 일, 창립 시기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박경숙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탐방로 가는 법 알려줬으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10곳은 시대별 역사길, 삼남대로 옛길, 풍경이 있는 가람길, 사람과 낭만, 사색이 있는 테마길 등 이름만 들어도 걷고 싶은 길입니다. 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길의 시작점, 지자체 관련 관할 부서 전화번호 등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박동현 (회사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알립니다

한국문화 알릴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생 홍보대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올해 6~8월 기준 전국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접수 기간 | 5월 1일까지
모집 인원 | 30명 내외
활동 기간 | 2011년 6~8월(3개월)
접수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또는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culturenori.tistory.com)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지원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및 우수 활동자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korculture@hanmail.net(이메일 문의만 받음)

대한민국의 복지기록을 찾아주세요

국가기록원은 '복지 대한민국 기록 찾기' 기증캠페인을 실시한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복지서비스 변화를 알 수 있는 기록물이 대상이다. 복지카드, 무료배식권, 무료승차권, 의료보험카드(1960~1990년대), 복지 관련 포스터 등을 지닌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접수 기간 | 5월 31일까지
접수 방법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31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특수기록관리과, lee4566@korea.kr
지원 혜택 | 정부 포상 추천, 감사장 및 감사선물 증정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 ☎ 031-750-2390 www.archives.g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삐'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전화료 약 1백40원
문자 투표 | 제주, jeju, JEJU 중 택1 하여 문자 작성 후 001-1588-7715로 전송.

자세한 내용은 '세계 7대 자연 경관 제주 공식블로그(blog.naver.com/7wondersjeju)' 참고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5월 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 부부.
4.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 왜적을 무찌른 철갑선.
6. 선사시대의 무덤. 전국에 두루 분포하며, 특히 전북 고창, 전남 화순 등에 많이 남아 있죠.
7. 지진이나 화산 폭발, 폭풍 등으로 인해 바닷물이 높아져 육지로 덮치는 것.
9. 관공서나 회사 같은 곳에서 직원의 임면과 전보, 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과.

세 로

1. 불교 스님들이 일정 기간 외출하지 않고 한곳에 머무르면서 수행하는 제도. 우○○. 하○○.
2.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 직접 만나보는 일.
3. 귀, 코, 목구멍, 기관, 식도 등의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부서.
5. 북극권에 있는 바다.
8. 나, 우리 등 말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이르는 인칭.

<Weekly 공감> 105호(4월 13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농협 **3**상비 **5**준엄 **7**마술 **9**시주
세로 **2**협상 **4**비준 **6**엄마 **8**술시 **10**주역

<Weekly 공감> 105호 '공감 퍼즐' 당첨자

노정숙 · 전남 진도군 지산면
박미순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이경미 · 대구시 동구 동호동
전의재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최지현 ·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고리 원전 1호기 정밀 안전점검 받는다

설계 당시 계산 안 했던 강진, 지진해일 등 재해방지시스템도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전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요청을 수용해 곧 진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밀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조선DB

지난 4월 12일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이후 수명연장 및 안전성 논란 등으로 재가동이 무기한 연기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내 고리 1호기. 허남식 부산시장 등 부산시관계자들이 4월 18일 고리 1호기 외부를 둘러보고 있다.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21일 브리핑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한수원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에 대한 점검은 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3월 말 구성된 전국 21개 원전 점검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직원들이 맡는다. 원전 점검단은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윤철호 KINS 원장은 "세부 점검 계획이 세워지면 분야에 따라 새로운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단기 바꾼 전기계통 "안전엔 이상 없다"

시민단체 등의 점검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 안전 규제 당국의 점검을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경우는 없다"며 "점검 결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므로 이견이 있다면 그때 충분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년 전 고리 1호기 ‘계속 운전’ 심사 때 7개국에서 파견된 IAEA 전문가들이 현장 확인까지 했고, 당시 자신들이 언급한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메일까지 최근 보내왔다. 따라서 IAEA에 또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교과부 등 원전 안전 규제 당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원전 일제 점검 결과를 4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리 1호기 정밀 안전점검이 새로 시작됨에 따라 이 결과까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 발표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의 수소제어장비인 PAR(피동촉매형 수소 재결합기)이 신고리 3~4호기용이라 호환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장비는 캐나다의 AECL이 고리 1호기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더구나 고리 1호기의 수소와 신고리 3~4호기의 수소가 다른 것이 아니므로 어디에 갖다 놓아도 다 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기 발생 효율을 위해 가능한 한 얇아야 하는 부품으로, 얇다고 지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특히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진성 검사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과 윤 원장은 모두 “지난 4월 12일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전력선 차단기 고장과 원자로 정지 사고는 단순 부품 결함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년 1월 17일 10년 일정으로 재운전에 들어갔다.

최소 일주일, 최대 한 달 이상 가동 중단해야 할 듯

정밀 안전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 사장은 지난 4월 20일 과천 지식경제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로부터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받은 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후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전원계통 고장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고리 1호기가 정밀 안전점검을 받기로 함에 따라 재가동 시기는 상당기간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수명연장을 위한 점검 때 6개월간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번 정밀진단이 지진이나 지진해일에 대비한 점검만 한다면 일주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점검 내용까지 다시 확인할 경우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재가동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고리 1호기는 설계 당시 강진, 지진해일 등에는 거의 대비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그동안 상상하지 않았던 재해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해방지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원자로의 안전설비 같은 하드웨어 측면뿐 아니라 작업자의 교육상태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전기계통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 과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비상시 대응절차와 조직 운영체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고리 1호기는 가동 중단에 따른 하루 손실이 5억2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으로 치면 1천8백88억원에 해당된다. 설비용량이 58만7천킬로와트인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09퍼센트를 차지한다. 연간 발전량은 인근 부산 시민이 3개월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에 해당된다.

여름철까지 재가동 못 하면 예비전력 안정권 위협

현 시점에서 고리 1호기가 정밀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전력공급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방기 가동 등으로 전력수요가 최고치에 이르는 여름철까지도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한전은 전력수요 최고치의 경우 예비전력이 4백만킬로와트를 안정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용량 58만7천킬로와트)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 예비전력은 3백40만킬로와트대로 떨어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고리 1호기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 가구당 연간 2만5천원 정도의 전기료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와 같은 양의 발전을 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간 약 5천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발전단가가 원자력은 kWh당 40원 수준인 반면, LNG는 3배가 넘는 1백25원이기 때문이다. G

글 · 서일호 기자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4월 20일자(106호) 9쪽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초읽기’ 기사 관련입니다.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4월 15일(금) 오후 6시를 기해 1호기 재가동을 밝혔고, 15일 밤 마감 직전 고리원전 당직실에 확인 취재한 결과 “교과부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재가동 초읽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17일(일) 재가동은 무기 연기됐고 안전점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

31년전의 비극… “빨리 합일점 찾아야죠”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승려 및 불교 관련자 1천9백여 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한 사건이다. 10·27법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2008년 12월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영담 스님을 만났다.

서경리 기자

영담 스님은 “10·27법난 당시 피해를 입은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관훈동 동덕빌딩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사인 조계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위원장은 영담 스님이며, 조계종 총무부장직도 겸하고 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 1천9백여 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1천7백년 한국 불교 역사상 최대 사건으로 꼽힌다.

불교계는 이 사건을 “한국 불교 사상 가장 비극적이며 대표적인 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출발은 이런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정부에서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민간위원으로, 조계종에서 총무원 총무부장과 사회부장이 참여해 활동하고 조계종 총무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거리마다 연등이 내걸려 있던 지난 4월 20일 오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영

담 스님을 만났다.

영담 스님은 15세 때 출가해 범어사 강원(승가대학)과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은사인 고산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재창건한 부천 석왕사 주지로 부임한 후 대형 사찰로 성장시켰다. 도심 사찰인 석왕사는 야간학교 개설,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해 인천·부천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10·27법난이 발생했을 당시 영담 스님은 석왕사의 총무로 있었다. 영담 스님은 "1980년 초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도 나는 거리에 나가지 않았다"면서 "10·27법난을 겪은 후 야학을 개설하고 노동자 문화잔치를 여는 등 사회 민주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10·27법난을 지켜보면서 "반체제는 할 수 없지만 반정부는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것이다.

"역사교육관 꼭 건립돼야"

영담 스님에게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에 대해서 물었다.

"지난 19일에 그동안 출입을 금지시켰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계사에서 법회를 가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풀어 가는 거죠. 사월 초파일 봉축 법요식을 통해서 (정부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선언적 의미가 나올 거라고 봐요. 갈등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빨리 풀어야죠."

영담 스님은 10·27법난은 불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10·27법난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체 종교계의 문제이자 국민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억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코 불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바쁜 날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스님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이 전국 사찰을 직접 다니면서 피해 사례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위원회가 활동해 온 지 2년4개월여가 돼 가는데 성과가 없나요.

"그동안 명예회복 47건, 의료비 지원 26건 등 피해신청 73건을 신고받아 그 가운데 5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10·27법난 기념행사와 역사교육관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27법난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사건으로서 전체 종교계의 문제이자 국민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억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코 불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교육관 건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역사교육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립비용을 1천5백억원으로 결정했는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므로 국방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일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법난 피해자 신청대상입니까.

"10·27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 그 대상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피해신청 안내광고 게재, 옥외 전광판 방영,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왔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요 법난 피해 스님에 대해 조계종단과 협력, 신청서 접수를 권유하고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방문활동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영담 스님은 "불교계 최대 경축일인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올해는 이슬람교 지도자도 초청하는 등 주요 종교 지도자를 초청했다"면서 이런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종교 간 화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최고라는 독선을 가진 것도 문제입니다. 독선을 버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G

글·김성동 기자

10·27법난 피해자의 피해신청서 접수 안내

기간 2010년 3월 1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자격 피해자, 유족(사망 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의 ☎02-748-5555 www.1027beopnan.go.kr

맨땅이 푸르른 축제공원으로 변신

경기 양평 남한강변 강상체육공원을 '희망의 숲'으로 만들어

생태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경기도 양평군 남한강변의 강상체육공원이 축제공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4월 '희망의 숲' 조성 행사가 열려 푸른빛을 더한 강상체육공원은 곧 '양평나루께 축제공원'으로 이름을 바꿔 물 맑고 경치 좋은 양평의 축제 보금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 양평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수년씩 소중하게 길러 온 소나무, 단풍나무, 구상나무, 느티나무, 산수유, 은행나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양평 지역주민들과 외지인들이 흥겹게 어우러질 축제의 장을 더욱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다.

지난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교평3리 남한강변에 위치한 강상체육공원에서는 '희망의 숲' 식목 행사가 열렸다.

조선DB

4월 19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강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생명의 숲' 식목 행사. 김선교 양평군수 등 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기증받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있다.

김선교 양평군수와 최주영 양평군산림조합장 등 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백여 명은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기증한 소나무, 단풍나무, 구상나무 등 1백여 그루의 큰 나무들을 공원에 심었다. 이들 나무에는 기증자들의 정성을 기리고자 동판으로 제작된 명패가 부착됐다.

양평군은 앞서 지난 4월 5일에도 이곳에서 식목일날 기념행사를 갖고 남한강 교평지구 7천평방미터 지역에 느티나무, 소나무 등 큰 나무 1백50그루와 영산홍, 산철쭉 등 작은 나무 2천5백여 그루를 심었다. 이렇게 푸르게 가꿔지고 있는 강상체육공원은 남한강변에 조성되는 생태체육공원이다.

그동안 주로 조기축구회 축구장으로 사용돼 오던 11만8천3백22 평방미터의 '맨땅 운동장'은 지난 2009년 축구장 4면(잔디2,마사토2), 족구장 2면, 테니스장 6면(하드2,클레이4)과 주차장 등으로 새

제3회 용문산 산나물 한우 축제 장소별 행사

개최 장소	행사명	일시	문의
강상 체육공원	제5회 월드DJ페스티벌	5월 6일 오후 6시 ~8일 오전 8시	상상공장 ☎02-3141-1011 www.worlddjfest.com
	양평MTV랠리	5월 10일 오전 9시	양평군청 문화관광과 ☎031-770-2473, 2064 www.yp21.net
	'용문산 산나물 한우축제' 공개방송	5월 14일 오후 7시	
용문산 관광지	산나물, 친환경농특산물판매, 채식, 한우, 체험, 전시, 문화 등 주제별 행사	5월 6~15일	
양근천 야외공연장	양평 와글와글 음악회	5월 11~15일 오후 7시	
양평군민회관	굿(GOOD)보러가자	5월 14일 오후 2시	
양평 실내체육관	전국댄스스포츠 경연대회	5월 7~8일	
용문역앞 특설무대	은빛예술제전, 치어댄스, 퓨전국악	5월 8~14일 매일 오전 11시~오후 6시	

로 단장됐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물론 도보로 15분 거리인 인근의 전철역(중앙선 양평역)을 이용해 '원정 오는' 외지인들까지 즐겨 찾는 레포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외지인들도 즐겨 찾는 레포츠 중심지로

게이트볼 동호인인 양평군 주민 이복재(56·양평군 단월면)씨는 "강상체육공원은 새 단장 전까지만 해도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으나 요즘은 비가 와도 침수되지 않아 운동하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오는 9월 이곳에서 대통령배 게이트볼대회도 열린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9월 10~12일에는 강상체육공원에서 양평군 주관으로 2박3일 일정의 '2010 경기레포츠 페스티벌'이 개최돼 캠핑족이 둥지를 틀기도 했다. 캠핑카를 몰고 오거나 텐트를 친 이들 캠핑족은 낮에는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 활동을 즐기고, 밤에는 공연과 바비큐 파티를 만끽했다.

오는 5월 강상체육공원에서는 양평군의 대표 지역축제인 '제3회 용문산 산나물한우축제'(5월 6~15일)의 일환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열린다.

먼저 5월 6~8일 2박3일 동안 '상상공장'이 기획하는 제5회 월드DJ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이 밤을 새워 모든 장르의 음악을 즐기는 월드DJ페스티벌은 그동안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려 왔으나 올해 강상공원으로 장소를 옮긴 것이다. 또 양평MTV랠리(5월 10일), 공개방송(5월 14일) 행사도 열린다. 용문산 산나물한우축제 행사는 아니지만 제13회 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 겸 경인일보남한강마라톤대회(5월 14일)도 강상체육공원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해 개최된다.

'양평나루께 축제공원'으로 개칭

양평군은 강상체육공원에서 처음 열린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의 성공 개최에 힘입어 강상체육공원을 '축제공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하고 지난 3월 말 강상체육공원을 '양평나루께 축제공원'으로 개칭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관련 법안은 양평군의회에 다음 회기 중 상정된다.

양평군청 문화관광과 왕영범 주무관은 "그동안 우리 군은 가평의 '재즈페스티벌'과 같은 특색 있는 지역축제 개최를 모색하다 월드DJ페스티벌을 유치했다"며 "봄에는 월드DJ페스티벌, 가을에는 경기레포츠페스티벌이란 두 축을 중심으로 강상체육공원을 '양평나루께 축제공원'이란 새 이름에 걸맞은 축제의 장으로 가꿔 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경아 기자

나무 심어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만듭니다

김선교 양평군수 "250리 새 자전거길 기대하세요"

조선DB

"우리 양평군의 '희망의 숲' 가꾸기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행사란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두번째 '희망의 숲' 가꾸기는 지역주민들과 단체가 기증한 나무심기를 했다는 점에서 뜻깊었습니다."

4월 19일 강상체육공원에서 만난 김선교 양평군수는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도 나무심기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나무기부문화를 조성해 나무심기 운동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의 운동화 바닥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이날 몸을 사리지 않고 나무심기에 앞장선 덕분이다.

양평군 내 여러 면장직을 거쳐 양평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군수는 지난 2007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양평군수로 취임했으며, 지금까지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경치 좋은 양평을 '친환경 관광지역'으로 알리고 외지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로확장 공사다.

김 군수는 송파와 강상IC까지 민자고속국도 건설과 지평~양동 전철 개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양평은 산업생산의 60퍼센트 이상을 관광서비스와 친환경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개발규제에 묶여 있어 50인 이상 공장 신설이나 대형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지요."

양평은 서울에 인접해 드나드는 관광객이 많지만, 여느 농촌과 같이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8월 열린 '아이낳기 좋은세상 양평군 운동본부' 간담회에서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올 4월부터 출산장려금을 5백~1천퍼센트 대폭 인상해 '통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렇게 낳은 양평의 인재들을 훌륭한 지역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5백억원의 발전기금 조성을 목표로 해 지금까지 1백75억원의 기금을 유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김 군수가 요즘 기대하고 있는 사안은 남양주 팔당대교~양평군 양근대교를 잇는 폐철교를 활용한 20.4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다. 오는 5월 말 착공돼 8월 말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멀리 인천~강화~서울~남양주를 거쳐 양평까지 이어지는 2백50여 리의 자전거길이 뚫린다.

"새로운 자전거길을 따라 물 맑고 경치 좋은 양평으로 와 주셨으면 합니다. 종착지인 양근대교 직전에 위치한 강상체육공원은 이들에게 쉬어 갈 곳이 되어 주고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13개 부처에서 2백92개 복지사업 추진… 과연 최선인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가 '진짜 복지'

복지에 대한 요구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복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복지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복지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회복지 전담기구(가칭:사회복지청) 신설방안 모색'에서였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13개 부처에서 2백92개의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요 복지급여 유형별로 집행기관을 살펴보면 각 제도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갖기 어려운 분산적인 운영구조"라며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균형적으로 수행될 전달체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의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복지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과거 수직적인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강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청' 신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정책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청 모델은 복지행정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다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설계에서 집행까지 일관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전문화와 행정 효율화, 서비스 조정과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사회복지청' 신설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평하면서도 보다 치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균형적인 개선전략 필요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 업무의 통폐합과 사회복지청 신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중앙정부의 혁신 없이 지방정부만의 전달체계 개선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개선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복지 전담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사무를 중앙의 전담기구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그동안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노력은 구조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미시적 접근만을 시도해 실패했다"며 "중앙 및 광역 차원의 정부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 글·변형주 기자

'복지 전도사' 이춘식 의원 인터뷰

"사회복지청 세워 복지 효율성 높여야"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별칭은 '복지 전도사'다. 지난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인기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로 자청해 옮길 정도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노인과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복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돌이며 2만 달러 경제에서 3만, 4만 달러 경제로 가는 우리나라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문제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DB

이 의원은 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전담기구인 가칭 사회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부처에서 3백에 가까운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도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

예산 증액 않고 복지문제 해결할 방법 찾아야

"올해 복지예산은 86조원으로 국방예산의 3배에 가깝습니다. 복지예산은 매년 증액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막대한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부처가 복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과잉복지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청은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이런 중복·과잉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복지행정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일선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직무에 만족해야 복지 행정의 효율성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일반행정부서에서 복지부서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복지에 대한 이해가 낮을 것입니다. 일반 행정과 복지 행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무만족도도 높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부서라는 이유로 하루 빨리 일반 행정으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복지 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반행정과 구별되는 복지 전담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원은 복지 전담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핫이슈로 떠오른 복지 논쟁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의 명분이 약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는 원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선별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생각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만들어 복지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선별하고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론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 의원은 꼭 복지 전담기구 신설 문제가 아니라도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무작정 예산만 늘린다고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변형주 기자

“오늘도, 내일도 안거위사(安居危思)”

5월 2~4일 사흘간 전국적인 방재 훈련… 특수재난 대응 중점 추진

일본 대지진으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속수무책’,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레 포기할 일은 분명 아니다. 대비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안거위사(安居危思)라고 했다. 편안할 때 위험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오는 5월 2일부터 사흘간 시행되는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내일의 안전을 위한 오늘의 준비다.

일본 이와테현의 가마이시 지역의 ‘기적’이 화제다. 지난달 대지진과 쓰나미로 이 지역에서는 약 1천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초중학생들은 대부분 무사했다. 비밀은 평소의 교육과 훈련에 있었다. 이 지역 초중학교들은 2004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행동요령을 연간 10시간 이상씩 교육받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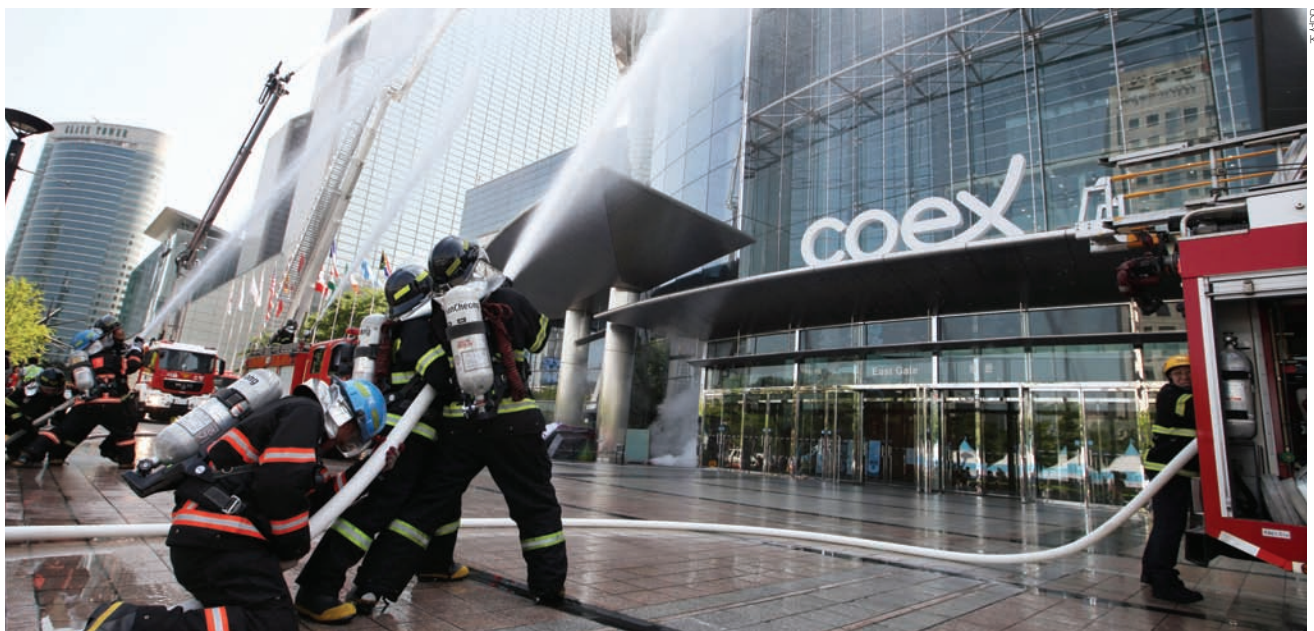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쓰나미가 닥치자 중학생들은 어린 초등학생들의 손을 잡고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했다. 1차 대피소인 양로원마저 위험해지자 이번엔 초등학생과 할머니의 손을 잡고 2차 대피소를 향해 달렸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했다.

가마이시 지역의 사례는 평상시의 대비가 최고의 재난 대응이라는 사실을 웅변한다. 최근 방재 분야에서는 재난에 대한 인적 대비 역량인 ‘휴먼웨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보다 민간분야의 휴먼웨어가 화두다.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재난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 따라 행동… ‘보여주기 의전행사’는 생략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재난은 더 이상 공공기관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의 공조와 실천, 즉 스스로 주변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민간휴먼웨어’ 강화를 통한 자조예방이 중요하다”며 “수없이 반복되는 재난대응훈련과 방재교육만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휴먼웨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재난

조선DB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중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 대응훈련이다. 올해엔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민참여확대, 실제훈련체제 구축, 국민홍보 강화, 극한기상 자연재해 대응훈련, 테러·화재·지진 등 특수재난 대응훈련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임을 전제하고 진행된다. 훈련 기관과 단체, 대상이 형식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훈련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보여주기 의전행사'는 과감히 생략한다.

2011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일자	훈련	내용
5월 2일	국가안전대책 점검·극한기상 재해훈련	•국무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강력 태풍 내습에 따른 극한 기상 재해 대응훈련 (9개소) •재난안전캠페인, 취약가구 안전점검·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5월 3일	대테러·화재 등 인적 재난 대응훈련	•불시 테러 대응 태세 강화훈련 (13개소) •다중 밀집 및 특수시설 인적 재난 대응훈련 •중앙부처 주관 재난 대응훈련
5월 4일	지진(해일) 대응·재난 위험 국민대피훈련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붕괴·화재·침수 등 대응훈련 (7개소) •지진 발생, 주민대피·차량통제 훈련 (재난위험경보 발령 11:00~11:20) •전국 유초중고생 지진 화재 대피훈련 •정부청사 대피훈련 (중앙·과천·대전·지자체 청사)

자료 소방방재청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전 국민이 재난에 대한 대응 요령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말 그대로 '민간휴먼웨어'의 강화다. 먼저 민방위대원(3백93만명), 의용소방대(10만명), 자원 민방위 연합대(3만명), 재난안전네트워크(4백40만명) 등 8백46만명 규모의 민간재난관리 조직이 대거 참여한다.

훈련을 지켜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국민참관단'도 운영한다. 훈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훈련장에 참관인석을 마련해 훈련을 참관하게 되며 훈련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소감과 의견을 낼 수 있다. 참관단 규모는 2만2천8백명 이상이다.

국민평가단도 운영한다. 3개 평가단, 258개반, 1천5백7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평가단이 지적한 문제점은 관계 법령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반영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는 재훈련을 해야 한다.

실제 상황 전제로 '실전 같은 연습' 실시

훈련은 현장대응훈련과 시스템훈련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현장대응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재난 발생 현장에서 관련 기관 단체와 국민이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다. 16개 시도 37개소(중앙 주관 3개소, 지자체 주관 34개소)에서 실시된다. 시스템훈련은 문서상으로 재난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실제 상황과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14개 중앙부처와 2백24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태풍 등 극한기상 자연재해 대응훈련과 테러·화재·지진 등 특수재난 대응훈련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극한기상 대응훈련은 풍수해 대응이 주목적으로 현장훈련은 피해 규모가 큰 사례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현장훈련지역을 선정해 실시된다. 하천범람·저수지 붕괴·저지대 침수·산사태 매몰·배수장 침수·제방 붕괴·지하시설 침수·유도선 침몰 등에 대응하는 훈련이다.

전국 2백28개의 배수펌프장도 점검한다.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4대강의 보 설치 현장도 점검 대상이다. 핫라인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테러와 화재 대응훈련 역시 실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된다. 테러와 화생방, 폭발, 붕괴, 화재 등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들의 공조체제와 총력 합동대응태세도 구축한다.

지진과 지진해일 대응훈련도 실시된다. 지진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와 차량통제가 주내용이다. 훈련 3일차인 5월 4일 오전 11시에 강진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20분 동안 치러진다. 먼저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운행 중인 차량은 모두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소방 경찰 방재차량 등이 다닐 수 있는 비상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유초중고생들은 재난안전교육과 대피훈련을 받는다. 외국인들도 참여한다. 서울용산국제학교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지진 대피 및 화재 진화 특별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다국어 훈련 안내문과 동영상 등을 통해 재난대피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피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2만명의 대피 유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방사능 누출 대응훈련도 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대전방사능방재센터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전제한 방재훈련이다. 원자력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한 종합적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G

글·변형주 기자

"지진이다"… 학생 7백70만명 가상 대피

5월 4일 경보 나면 1~3분간 책상밑으로… 진동 끝나면 건물 밖으로

일본 동북 지방을 초토화시킨 자연재해 속에서도 많은 일본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재난대피 훈련을 철저히 받아 온 덕분이다.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올해는 특별히 일본의 지진해일 피해를 교훈 삼아 지진(해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어떠한 종류의 재난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목숨은 자기가 지킨다는 각오로 재난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지진대피 훈련에 참가하는 유치원과 학교는 1만9천개이며 대상인원은 7백70여만명이다.

이번 훈련은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하나로 진행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주관하는 범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훈련으로 200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다. 훈련은 매년 4월 혹은 5월 중에 한 번 실시된다.

올해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일본 동북지방의 대규모 쓰나미 피해를 계기로 지진(해일)에 대한 대응과 재난에 따른 국민대피 훈련 분야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진(해일) 대응 및 대피 훈련은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붕괴·화재·침수 등 대응훈련(7개소) ▲지진발생, 주민대피·차량통제 훈련(재난위험경보 발령 11:00~11:20) ▲전국 유·초·중·고생 지진·화재 대피훈련(1만9천6백25개 학교, 7백70여만명) ▲정부청사 대피훈련(중앙·과천·대전 및 지자체 청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훈련 3일째인 5월 4일 오전 11시 지진(해일)경보

훈련 3일째 실시되는 지진대피 훈련은 5월 4일 오전 11시에 지진(해일)경보가 발령되면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경보는 20분간 발령되며 이와 동시에 전국민 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재난대피 훈련 등이 실시된다.

이에 앞서 지진(해일)경보가 발령되기 1시간 전부터 각 훈련 참여기관에서는 지진, 화재, 자연재해, 지하철 사고 등에 대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난위험 경보가 발령되어 지진대피 훈련이 시작되면 교실 내 학생들은 먼저 1~3분 정도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방석 등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한다. 지진동(地震動: 지진으로 지반과 건물이 흔들리는 등의 움직임)이 끝나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운동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일러스트·주만성

소방방재청은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가마이시'의 3천여 명의 초·중학생들이 평소의 반복된 대피훈련 덕분으로 대부분 화를 면했던 사실을 교훈 삼아 이번 훈련에 전국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훈련 중 동해안, 제주도 등 4개 시도 17개 시·군·구 해안가에서는 실제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하므로 해당 지역 학교 학생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지정된 대피로를 따라 신속하게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첫날(5월 2일)에는 극한기상에 따른 풍수해 대비훈련을 하고, 둘째 날(5월 3일)에는 테러와 화재대응태세 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5월 4일 오전 11시)에는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주민대피, 차량통제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글·이상흔 기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집 안에 있을 경우

- 지진이 발생하면 1분 정도만 큰 진동이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 탁자 등의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해야 한다.
- 작은 지진이라도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서로 대화를 하여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집 밖은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밖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탈출해야 한다.
- 지진이 발생하면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문을 재빨리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2 집 밖에 있을 경우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하며, 빌딩 등에서 낙하할 수 있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으로부터 피해야 한다.

3 백화점 등과 같은 상가에 있을 경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4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경우

안전을 확인해서 가장 가까운 층에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해야 한다. 절대로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

5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큰 충격이 닥쳐오므로 화물 선반의 횡축이나 손잡이 등을 꽉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후 차내방송 등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해야 한다.

6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 밖으로 대피할 경우 차 열쇠를 꽂은 채 대피해야 한다.

조선DB

2010년 5월 실시된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규모 6.5 강진 발생을 가정한 지진대피훈련 중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고 있다.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산사태나 절개지의 붕괴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해안에서는 해일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니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8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재해발생 시에는 부상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방법을 배워 둔다.

9 피난은 마지막 수순

지진에 의한 화재가 크게 확대되어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히 경찰관 등의 안내에 따라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가지고 대피해야 한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이용한 대피는 절대로 안 된다.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지진발생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유언비어가 많이 유포될 수 있다. 이러한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1 해안에서 지진해일은 어떻게 피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 서해안 바다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약 1시간30분에서 2시간 후에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진해일은 최대 3~4미터 정도의 파고로 동해안 전역을 내습할 것이다.
- 이러한 지진해일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되고,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지진해일은 여러 차례 열을 지어 도달하는데, 처음 지진해일이 도달한 후에 2~3차례 더 지진해일이 오게 된다. 지진해일은 처음보다는 다음에 오는 것이 더욱 강력할 수도 있으며, 지진해일에 의한 바닷물의 흔들림은 길게는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항구 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면 지진해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만 한다. 또한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지진 등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으므로 해일 경보가 없더라도 빨리 고지대로 대피한다.

12 평소 집에 준비해 두어야 할 물품

비상식량, 음료수, 회중전등, 건전지·성냥·라이터, 화장지, 수건, 구급용품, 휴대용 라디오, 비옷, 속옷, 병따개, 귀중품, 안경 등 생활용품, 생리용품, 종이 기저귀.

“훈련때처럼” 질서정연한 국민성 본받아야

동북부 대지진은 역부족이었지만 대피 연습은 늘 실제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을 겪고 있는 일본은 이번 지진과 지진해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방재 선진국’으로 꼽혀왔다. 이번 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과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나 재난 속에서도 빛을 발한 일본의 재난대비 훈련 성과는 우리에게 재난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거울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 강도의 강진이 발생했다. 센다이로부터 불과 1백30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대 30미터가 넘는 지진해일이 내습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해일 속보를 발표했고, NHK 방송은 긴급 재난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짧게는 10여 분, 길게 20~30분에 불과했던 시간은 지역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번 지진해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지만, 일본 전국 해안 마을에서는 수십 년간 지진해일 대피훈련이 수행돼 왔다. 얼마 전 TV를 통해 그들의 지진해일 대피훈련 모습이 방송된 적이 있다. 마을 전신주의 나팔 스피커로부터 긴급 사이렌이 발하자, 어린아이들은 헬멧을 챙기고 어른들은 가족을 모아 함께 산 위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들 손에는 ‘해저드 맵’이라는 대피용 지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이 급해도 애써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꼬마를 등에 업고 달리는 어른부터 심지어는 휠체어를 산으로 올리기 위해 청년들까지 애를 썼다. 산 정상에 다다른 아주머니 손에는 스톱워치가 들려 있었으며 “지난 훈련 때보다 2분 늦었네”라는 이야기를 했다.

대피용 지도 ‘해저드 맵’ 한 장씩 휴대

대피훈련은 그들 생활의 일부다. 정부가 준비한 해저드 맵은 대피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며, 주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대피할 경로와 목적지를 구깃구깃한 종이에 그려 숙지하고 있다. 나팔 스피커의 사이렌은 생명을 지켜주는 신호인 동시에 거의 반사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대피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들의 생활 일부분이 된 대피 과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조선DB

지진해일이 일본 북부 지방을 휩쓴 뒤 미야기현의 한 상점 앞에서 생필품 구입을 위해 줄지어선 일본인들. 오랫동안 재난대비 훈련을 거듭해온 일본인들이 대재난 앞에서 보인 침착한 대응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르지 않다. 비상시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자구책이라는 것을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언제나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불가항력의 재난을 만났지만, 수십 년간 규격화된 재난 훈련을 해온 '방재 선진국'의 사례는 지금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필자는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지역방송국에서 지진해일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점검하는 대담프로그램 녹화를 했다.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와 민방위 훈련 대피상황들을 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강원도가 가진 지진해일 방재대책을 직접 소개받는 귀한 기회였다.

지진재해대책법이 공포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제도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십여만 명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지정되고, 침수예상도를 통해 대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리는 등 현재까지 알려진 최첨단의 지진해일 방재대책이 소개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실에는 지진해일 경보를 위한 첨단의 정보기술(IT) 시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진해일이 내습하는 약 두 시간 동안의 상황관리에 대한 전략이 완성돼 있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번 일본 재난 이후 민방위 훈련에 지진해일 대피훈련이 포함됐으나 이전과 달리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했다. 도심에서의 훈련 역시 지진재해에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보는 국민 누구나 인식할 수 있어야

좋은 현상이다. 문제는 그다음에 있다. 먼저 경보의 문제다. 예를 들어 지진해일 경보는 어떻게 울리는지, 우리 국민 누구나 그 경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강원도 지역주민들은 방송 인터뷰에서 "최소한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제때 경보를 울려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다. 이는 지진해일이 올 때 어떤 경보가 울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요구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훈련으로 확인된 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적은 것이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목표가 아니다. 매뉴얼과 실상이 따로 놀아서는 의미가 없다. 매뉴얼에는 온전한 요구 사항과 그에 따른 절차가 숨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훈련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다.

여기에다 우리에게도 일본인들이 그러하듯 스톱워치를 들고 뛰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자발적인 대응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름 휴가철이면 누구나 언제든 해수욕장을 찾게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다소간의 긴장감을 통해 국민 스스로 관심과 '니즈(needs)'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조선DB

일본 야마가타의 한 대피소에서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엿보인다.

첨단 장비보다 긴장을 통한 관심과 니즈 필요

최첨단 IT시설을 활용한 경보시스템도 '효율적인 대피를 위한 니즈'로부터 도출돼야 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지진해일이 도달하기까지 카운트다운되는 대형 컴퓨터 화면이 주민 대피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해야 하겠지만, 그런 니즈 파악 없이 대형화면을 준비하는 일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비상상황이나 광역 단위로 활용될 시스템이라면 복잡한 첨단 시스템보다는 거의 수작업에 준하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본의 나팔 스피커와 구깃구깃한 대피지도, 그리고 주민 손에 들린 스톱워치가 자꾸 떠오른다.

우리는 아직 큰 규모의 지진해일 내습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앙을 보건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재앙이 경제, 사회에 출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기업과 주민들은 어느 정도의 대응능력이 있으며, 기업의 자조(自助)에 더하여 지역 또는 국가차원의 공조(公助), 그리고 그 양자 간에 어느 정도 공조(共助)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

훈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니즈와 참여 의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자.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만큼은 함께 긴장 좀 합시다"라는 캠페인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G

글 · 이호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수석연구원)

G20 SEOUL
SPEAKERS' CONSULTATION
2011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

Safe World, Better Future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2011. 5. 18 – 20 / 국회의사당 중앙홀

대한민국 국회 주최로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에 대해
세계 G20 국가의 의회 수장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이슈의 현안과 해법을 논의합니다.

기 획 특 집

여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아이냐 일이냐 택일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이 육아와 일 둘 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넘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란
미래 재앙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곧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아이와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 키우는 사회로…

육아휴직 사상 첫 4만명 돌파… 아이 키우는 아빠도 8백명 넘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은 모든 엄마들의 바람일 것이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더욱 절실하다. 이들이 남편이나 시부모, 친정부모의 도움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저출산·고령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으며 육아휴직자가 늘고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엿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산전·후 휴가자 3백37명 중 2백59명이 평균 2백8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유한킴벌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 2006년 4.8퍼센트에서 2010년 69퍼센트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0일 발표한 '모성보호급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최근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다.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들도 8백19명에 달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올 들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산망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만4천1백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3퍼센트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의 증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퍼센트(상한 1백만원, 하한 50만원)로 인상한 바 있다.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DB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서히 신생아 울음소리가 늘고 육아휴직의 선택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엄마·아빠들이 힘을 낸 덕분인지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출산율이 3년 만에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우리나라의 2010년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아이 수)은 1.2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02년 이후만 따졌을 때 2007년(1.25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2009년(1.14명)보다는 0.07명이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추진할 예정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정부가 '미래형 재앙'으로 주목해 온 문제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면 생산인구가 줄고 부양받을 노인이 많아지면서 성장동력이 꺼지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06~2010년)을 끝낸 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시행 중이다. 제2차 계획에는 다양한 출산과 보육지원책들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2일 제2차 저출산·고령화계획에 따른 각 부처의 출산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행복한 우리아이〉란 안내책자를 발행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이 책자는 ▲2011년 달라진 출산·육아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자녀성장 맞춤 지원 ▲맞벌이부부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도 소개되지만 올해 새롭게 달라진 대표적인 출산·육아 지원정책이 '보육·교육기 전액지원 대상 확대' 정책으로, 월소득인정액 4백80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는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됐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1백73만원 이하, 4인가구 기준)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앞서 예를 든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도 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대표주자' 중 하나다.

이 밖에도 올 4월 신청자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지난 1월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일반가정(월소득 5백27만원 이하, 2인가구 기준)의 경우 1백50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늘렸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2백7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제도 변천사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도 지난 1월부터 확대됐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렸으며, 둘째 아이부터 고교 수업료 지원(2011년 이후 출생아 대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이를 낳을 보다 좋은 여건'을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 2월부터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기존의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됐다.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다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

캠페인을 통한 출산·육아 환경조성 노력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3년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펼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이다. 올해의 경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6개 지자체를 직접 돌면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독려하고 있다.

박용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자녀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출산·양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인식개선 노력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G

글·박경아 기자

출산·육아 지원정책안내책자 〈행복한 우리아이〉 파일 다운받기
보건복지부 www.mw.go.kr / 아가사랑 사이트 www.aga-love.org

"아이만 낳으세요"… '통 큰 지원' 줄줄이

지난해 3년 만에 출산율 증가… 정부·지자체 다양한 장려책 쏟아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 장려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통 큰 출산장려금 지원'에서부터 '학원 수강료 감면 혜택'까지 전국 각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출생·사망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6만9천9백명으로 2009년보다 2만5천1백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는 9.4명으로 0.4명이 늘었고, 합계출산율도 1.22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의 늪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1년 이후 '오랜만'이다.

쌍춘년·황금돼지해 효과, 베이비붐 세대의 출산 세대 진입 효과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산 계획을 미뤘던 가정이 출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한 영향이나 정부의 출산 장려책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일러스트·주만성

이에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육아 문화 정착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4월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2061년까지 출산율을 30퍼센트로 높이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7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제2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를 펼친다.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의 성공적인 사례 발굴과 이의 확산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과 손잡고 출산율 높이기 나서

경진대회는 7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중앙경진대회 행사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경진대회로 나뉜다. 각 지자체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에서는 최근 전국시군구보육정보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공모전을 진행, 접수를 마쳤다.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기쁨과 설렘, 가족 안에서의 행복한 성장 등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통 큰' 시리즈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은 '통 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평군은 4월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 출산 시엔 3백만원(1백만원씩 3년간), 셋째 자녀 출산 시엔 5백만원(1백25만원씩 4년간), 넷째 자녀 출산 시엔 7백만원(1

백40만원씩 5년간),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엔 1천만원(2백만원씩 5년간)을 지원한다.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부모 모두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교육비 문제도 출산율 감소로 지적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 눈길을 끈다. 포항시가 펼치는 '출산장려123운동'은 첫째 자녀는 10퍼센트, 둘째 자녀는 20퍼센트, 셋째 자녀는 30퍼센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원연합회와 출산장려123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선DB

전국 지자체와 단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기본, 이색 지원책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 극복' 기업CEO 설득 캠페인도

13년 만에 '출산율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부산시는 올해 더욱 다양한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2010년부터 출생한 둘째 자녀에게 취학 전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는 보육료 전액은 물론 초중고 급식비, 학비 지원, 대학입학 시 첫 등록금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작년부터 매년 1백억원씩 출산장려기금을 적립해 2019년까지 총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동래구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임산부 여권발급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기업 발굴 등도 추진하고 있다.

강남 3구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 팔을 걷어올렸다. 송파구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만 12세 이상)에 대한 양육을 조부모가 담당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송파구 공보과 조수연씨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압구정2동 등지의 주민센터와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신사어린이집 재건축 등을 통해 구립어린이집 6곳을 포함, 올해 어린이집 10곳을 새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시간 전일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려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유자에 한해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요금을 20퍼센트 할인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에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서는 저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총망라한 〈행복한 우리 아이-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를 발간했다.

아이의 성장단계별 또는 대상자 특성별로 지원 내용을 수록함과 동시에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나 출생신고서 작성 시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다. 가이드 북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아가사랑 사이트(www.aga-love.org)에서도 볼 수 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3월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 : 전국 릴레이 CEO 포럼'에 직접 참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벌이고 있다. '전국 릴레이 CEO 포럼'은 5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진행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 만들기' '예고 없는 회식 안 하기' '정례적으로 패밀리데이 실시하기' 등 3대 실천과제를 제시, 전국 모든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G

글·박근희 기자

직장보육시설로 아이와 함께 출근해요~

인건비 지원·시설기준 완화로 보육시설 설치 기업 늘어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고 있다. 육아휴직 자체가 눈총의 대상이 되던 시대를 넘어 이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정부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육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이 증가하고 육아휴직 사용률도 늘고 있다. 올해 한층 다양해진 육아혜택을 누리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을 만나봤다.

작년 8월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박수정씨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우리은행 서울 상암동 지점 수신창구에서 근무하는 손혜진(34)씨는 요즘 출퇴근 시간이 여유롭다. 워킹맘인 손씨는 "직장보육시설이 아침 7시30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말했다. 손씨는 2년간의 육아휴직을 가진 후 복직하면서 어린 딸이 걱정이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2010년 3월 회사 내 직장보육시설이 생겼다. 어린이집이 우리금융 상암센터에 입주하면서 근무지와도 가까웠다. 손씨는 직장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서 순조롭게 복직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딱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선 직장보육시설은 큰 의지가 돼요. 회사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고 무엇보다 교사들이 좋아서 만족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어린이집은 32명의 원생이 다니고 있다. 학부모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다. 이를 고려해 어린이집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운영된다. 무엇보다 회사의 적극 지원으로 교사의 수준이 높고 시설이 좋아 깐깐한 워킹맘들을 만족시켰다. 원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직원들의 부담이 적다.

우리은행은 이처럼 맞벌이 부부를 배려한 보육지원 등 출산장려책으로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 포상 등으로 기업들을 장려하고 있다.

워킹맘들은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라 말할 정도로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아직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여성근로자 3백인 이상 또는 근로자 5백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에는 시설설치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공간 기준을 1~3층에서 5층으로 확대하는 등 까다로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동리 사무관은 "올해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추가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신설했다"며 "기업들의 직장보육시설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운영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 지원과 함께 맞벌이 가구 대상 혜택을 늘리며 육아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확대됐다. 기존 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뀌었다. 이로써 최고 1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용환 기자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 직장보육시설인 '우리은행 어린이집'에서 파랑새반(만 3~4세) 아이들이 김지은 교사의 지도 아래 '새싹 주먹밥 만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

부부가 1년씩 나누어 육아휴직 사례도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마모씨는 "생계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소득은 주는데 아이로 인한 지출은 늘어 부담이 크다"며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됐다니 둘째를 낳아볼까 생각 중"이라며 정책을 반겼다.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는 1만4천1백65명, 지원금액은 5백9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5.3퍼센트, 39.4퍼센트 늘었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도 크게 늘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자 중 여성이 98.1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 1분기 2백73명에 달했다. 작년 1분기 1백4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유별이(28)씨도 지난 1월부터 두 살짜리 아들을 돌보기 위해 1년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유씨는 "맞벌이 부부라서 따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고 어린이집에 맡기기에도 아이가 너무 어려 육아휴직을 결심했다"며 "지난해 아내가 1년, 제가 올해 1년 육아휴직을 쓰기로 아내와 상의했다"고 말했다. 회사에서 남성 육아휴직자 1호인 유씨는 "육아휴직을 처음 신청할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느냐 할 정도로 모르는 분이 많았다"며 "올해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둘이 벌 때보다는 적겠지만 지원이 늘었다니 좋다"며 환영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에 부정적이었던 기업 문화가 바뀐 영향도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2년간 산전후 휴가자 3백37명 중 2백59명이 평균 2백80일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유한킴벌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2006년 4.8퍼센트에서 2010년 69퍼센트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도 8백19명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천명이 넘는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올해부터 확대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월소득인정액(4인 가구 기준 4백80만원)을 기준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이 결정되는데,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의 25퍼센트를 제외한 후 합산하여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혜택은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산전후 휴가를 임신기간 중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 현행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날 예정이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제남 기자

정은주 기자

아이들이 목욕을 마치자 아이돌보미 한애령씨가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줬다. 한씨는 아이들의 옷이 어느 서랍장에 있는지 알아서 척척 입힐 정도로 한식구가 다됐다. 왼쪽부터 큰딸 이소윤, 쌍둥이 이건·이강, 한씨.

밥 먹이고, 놀아주고… '엄마품' 아이돌보미

한 달 6만원이면 쌍둥이 하루 2시간씩 봐줘… 다자녀 주부들 일손 덜어

세 자녀를 둔 이문자 주부는 아침이면 정신없다. 어린 딸에 이어 연년생으로 쌍둥이가 태어나 혼자서 애들을 돌보기가 너무 버겁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집에 고마운 분이 찾아오셨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으로 다자녀 보육이라는 큰 짐을 덜고 있는 이씨의 집을 찾아가 봤다.

오전 8시30분, 아이돌보미 한애령(55)씨가 세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동안 주부 이문자(43·서울 구로구 고척동)씨는 설거지를 한다. 이씨는 네 살배기 딸과 18개월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는 아침이 가장 정신없이 바쁠 때지만 이씨는 아이돌보미가 있어 한결 수월하다.

이씨는 "쌍둥이 엄마들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알게 됐다"며 "이 서비스가 없었으면 혼자서 아이 셋을 목욕시키고 밥 먹이느라 오전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며 대만족을 나타냈다.

이씨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하루 2시간씩 월 40시간 이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인당 연간 4백80시간 한도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에 우선 지원되며 전업주부라도 다자녀가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씨는 "지금처럼 원하는 시간대에 매일 와주는 돌보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작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정말 돌보미가 절실했는데 이런 지원이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아이와 놀아주기, 밥·간식 먹이기 등 기본적인 돌봄 역할은 물론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기 등 제2의 부모 역을 담당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숙제점검이나 준비물 보조 등 학습도 돌봐준다. 이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씨는 "돌보미 분이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며 "낯가림이 심한 우리 아이들도 친할머니보다 더 자주 보는 돌보미 분을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전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씨의 아이들을 돌봐왔다. 쌍둥이가 1백일이 갓 지났을 무렵부터였다. 한씨는 이제 세 아이의 옷이 어느 서랍장에 있는지 알아서 척척 입힐 정도로 한식구가 다됐다.

한씨는 "사실 나도 쌍둥이 엄마"라며 "쌍둥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하게 됐다"며 애정을 보였다. 그는 또 "2년6개월째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다"며 "우리 나이대는 아이들이 이미 다 컸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니 웃을 일도 많고 보람되다"고 말했다.

"1년 지냈더니 친할머니보다 더 좋아해"

이처럼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여성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중장년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윈윈 효과가 있다.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지원가능하며,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론교육 80시간과 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일할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에서 7천74명(2011년 3월 기준)의 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돌보미 이용자(가정) 수는 14만4천60명으로 수요도 많다. 우수한 인력제공과 함께 비용부담이 적어 인기가 더욱 높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시간당 5천원(아이 1명 기준)이다. 아이가 둘인 경우는 시간당 7천5백원으로 계산된다. 이 중 이용자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씨는 쌍둥이 기준으로 한 달에 6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이씨는 "요맘때 아이들이 엄청 싸워서 돌보미 이용시간을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하루 2시간 갖고는 아이를 맡겨두고 장보고 오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개선사항을 전했다.

이런 사정으로 이씨는 요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후 시간에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는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 한 달에 60만원이 든다"며 "부담스러워서 아직 막내아이는 못 보내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씨는 지난해까지 큰아이의 어린이집 비용을 일부 지원받았지만 올해 보육료 지원기준이 바뀌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내가 지금 40대인데, 내 나이에 집이 없으면 어떡하냐"며 "그런데 그게 소득으로 정산돼 보육료 지원을 전혀 못 받는다. 5천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상위 30퍼센트인지…"라며 보육료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올해 보육료 지원은 하위 70퍼센트까지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월소득인정액 4백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영유아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보육료 지원 하위 70퍼센트까지 대상 확대

서울 상계동에 사는 최모씨는 "그동안 보육료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힘들었는데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전혀 지원을 못 받게 돼서 일부 애로점도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은 건강보험료가 기준이지만 보육료 지원은 재산을 합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전국 1천 곳으로 확대·운영됐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해당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보육과 학습지도는 물론 아침·저녁 식사도 제공하여 직장인 여성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G

글·이제남 기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지원 내용**
  -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월 40시간(연 4백80시간 이내) 이용 가능
  -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지원
- **이용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 **우선지원 요건**
  -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 가구
  -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아를 포함한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 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질병 등에 해당되면 동일 지원
  - 취업을 준비하는 비취업모의 경우 일시 지원 가능
- **신청 장소** 관내 시 · 군 · 구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
- **신청 기간** 연중 수시(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문의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577-2514 www.idolbom.or.kr

새 옷 갈아입듯 새 일자리 찾아 줍니다

전국 9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등 종합지원

경력이 단절된 구직여성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 2월 전국 50개소로 시작해 지금은 90개소가 됐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을 한다.

한준호 기자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희엽 취업지원실장, 황윤주 교육팀장과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미지컨설턴트로 변신한 이현주씨(왼쪽부터).

"10여 년간 백화점에서 근무하다가 육아를 위해 1년 이상 쉬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지인의 소개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알게 됐고, 이곳을 통해 이미지컨설턴트로 변신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주)에이치알디엔 이현주(38) 선임강사의 어릴 적 꿈은 백화점 직원이었다. 그는 꿈을 이뤄 백화점에서 근무하게 됐고, 두 아이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겼다. 그런데 2008년 장남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다가 문득 자신이 아이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10여 년간 다니던 백화점을 퇴사하고 두 아이의 양육에 전념했다. 예상과 달리 아이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이씨에게는 우울증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인턴기회도 제공… 채용기업에 월 50만원 지원

지인의 소개로 문을 두드린 곳이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였다. 백화점에서 교육담당을 했던 이씨는 4박5일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이미지컨설턴트로 변신했다. 그는 "'목표를 정했으면 문턱까지라도 가 봐라. 아이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데 어른들은 넘어지면 왜 주저앉냐'는 센터장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씨가 하는 일은 기업체의 고객만족과 관련해서 소비자 응대매너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이 교육을 받은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맡게 됐다. 그는 "내가 경험했기에 구직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새 직장에서 다시 활력을 얻은 이씨는 이미지 컨설턴트, 레크리에이션 강사, 웃음치료사 등의 자격증을 따서 더욱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여성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새일센터는 2009년 2월 전국 50개소로 시작됐다. 2011년 초에는 90개소로 늘어났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지원을 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한다. 6개월간 월 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2010년 인턴 참여자 4천3백8명 중 3천9백52명이 지원 만료 후 해당 사업장에 취업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에게도 재능과 특성을 고려한 직종으로 인턴 기회를 제공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한다.

2010년 새일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취업인원이 2009년 6만7천5백19명에서 10만1천9백80명으로 증가했고, 취업률도 51.8퍼센트에서 62.1퍼센트로 향상됐다. 참고로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수는 2009년 9백72만2천명이었고 2010년 9백91만4천명이었다.

2010년 새일센터 추가 지정, 취업설계사 증원으로 서비스 제공기반이 확대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찾아가는 구인·구직 서비스,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 등 새일센터만의 특화사업과 각 센터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취업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재취업 여성 40대 이상이 60퍼센트 넘어

2010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40대 35.5퍼센트, 50대 이상 28.9퍼센트, 30대 25.9퍼센트, 20대 이하 9.7퍼센트다. 4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의 64.4퍼센트를 차지해, 경력단절 후 자녀양육의 부담이 감소되는 시기에 취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업 30.3퍼센트, 사무·경리 17.1퍼센트, 공공·사회복지시설 13.1퍼센트, 제조업 12.9퍼센트로 전통적인 여성 선호 직종에 취업하는 경향이 높았다.

근로형태별로는 상용직 47.4퍼센트, 계약직 23.1퍼센트, 시간제·일용직 등 기타 29.5퍼센트로 상용직의 비율이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인 47.3퍼센트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새일센터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79.8점 '수요자(센터연계 인력채용 기업의 인사담당자) 종합만족도'는 80.6점으로 나타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기관으로서 이용자나 수요자 모두에게 새일센터가 우수한 인프라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는 기관인프라(83.8점), 직업훈련 서비스(82점), 취업지원 서비스(80.8점), 취업만족도(73.6점) 순으로 나타나,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취업분야 및 처우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요자 만족도는 취업대상자(82.5점), 기관인프라(81.8점), 취업지원 서비스(80.5점), 직업훈련 서비스(77.8점) 순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새일센터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

글·서일호 기자

한마디 더

"기업과 주부들에게 여기를 널리 알려 주세요"

서희엽 실장은 "센터 평가는 취업실적만이 아니라 교육 서비스, 기관 인프라 등을 총괄해서 받는다"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려 주는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센터 지원이 계속 늘고 있지만 결국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도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서 실장은 "교육생이 취업면접을 가면 우리 직원이 그와 함께 동행해서 인사 담당자에게 교육생의 장점을 강조해 준다. 이 같은 동행면접이 취업률을 높여 준다"면서 "센터에서는 취업 후 3~6개월 동안 사후관리도 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 대졸 여성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도 주부들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비정규직이 많은데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곳의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황윤주 팀장은 "보통 3개월 과정으로 비디오 저널리스트, 환경지도사, 조리, 제과제빵, 헤어, 피부미용 등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강료는 3만~12만원으로 취업 시 전액 환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강생은 40대 주부가 가장 많고 30대, 50대 순으로 뒤를 잇는다. 단순 서비스 직종을 위한 과정이 많지만 지도자 과정도 인기가 높다. 황 팀장은 "취업 의사가 없었는데 교육을 받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업을 한 경우도 많다"면서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온라인블로그마케터' 과정을 이수한 후 '원더우먼'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엄청난 수입을 얻게 된 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국에 새일센터가 90곳이 넘는데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기업들과 주부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는 기업들과 주부들에게 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선DB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가족친화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KT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워킹을 실시하고 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굿굿!

스마트워킹 등 우수 여성인재 확보로 생산성도 대폭 높아져

'회사냐 가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 직장인이라면 한번쯤 해봄직한 고민이다. 하지만 사정은 달라지고 있다. 가정과 일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직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으로서도 이익이라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

KT에서 근무하는 C차장은 지난해 가을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그해 여름 C차장은 욕실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병가를 내고 한 달 반 정도를 쉬었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다. 목발에 의지해 겨우 걸음을 뗄 수 있었다. 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길은 눈물 나는 고역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C차장의 고생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9월 1일 회사에서 도입한 스마트워킹 제도 덕에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워킹은 유·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거리 근무제도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볼 수 있고 전국 9곳에 설치된 스마트워킹 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C차장은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C차장은 "스마트워킹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회사에 있는 내 자리를 그대로 집에 옮겨 놓은 듯 일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골절 부위의 빠른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KT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여가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됐다.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관심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증기업이 2008년 14개에서 2009년 20개, 지난해 31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여가부 가족정책과 이재웅 사무관은 "해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헤르티에재단에 따르면 가족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러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30퍼센트 높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랄 수 있는 우수인재 영입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데다 직무만족도와 몰입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제품에 인증 표지를 부착하는 등 마케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방부와 조달청의 물품구매 입찰 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을 주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우수 인증기업에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삶의 질 높이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직원들이 환영하는 것은 물론이다. 근무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의 호응이 크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바쁜 일과 탓에 소홀해질 수 있는 가족을 좀 더 꼼꼼히 챙길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가족친화 경영의 유형은 다양하다. 탄력근무제,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근로자 지원, 부양가족 지원, 가족관계 증진 등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무제는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KT의 스마트워킹이 이에 해당한다. 직원들은 스마트워킹을 통해 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 40시간 근무 대신 주 15~20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단시간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간 등 정상적인 업무가 벅찰 때 활용하면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일러스트·유현호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도 적잖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8시 출근 5시 퇴근처럼 출퇴근 시간을 한두 시간씩 옮기는 방법이다. 임신 초기에는 러시아워의 혼잡과 불편을 피할 수 있고, 육아기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근무시간·장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 교육을 지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양육비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여성인력이 많은 기업일수록 적극적이다. 화장품 전문기업인 로레알코리아는 태아검진 휴가, 조산 및 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아이가 없는 직원들을 위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불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불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들은 직원의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통해 더욱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201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받아요~

Best Family Friendly Management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는 201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4월 5일 시작해 오는 8월 말까지 5개월간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크게 간소화했다. 심사일수를 대기업의 경우 8일에서 6일로, 중소기업은 4~6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심사비도 66만원에서 25만원(1인 1일 기준)으로 줄였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커트라인도 낮췄다. 종전까지 70점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60점만 받으면 된다. 인증심사를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707)로 문의하면 된다.

‘안심택시’ 등 보호장치 꼭 기억하세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늘진 곳에서 더 부지런히 이뤄지고 있다. 편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는 동네, 밤길 걷기 안전한 도시, 편안히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여성들에게 취약한 시간과 장소를 없애고, 취약여성을 위한 배려를 찾아보았다.

여성·노약자를 위한 ‘안심귀가 택시’
승객이 지정한 전화로 택시번호 등 문자서비스

“서효빈님이 4월 18일 23시35분에 차량번호 서울32바7×××(택시)에 승차하셨습니다.”

“서효빈님이 4월 19일 00시10분에 차량번호 서울32바7×××(택시)에서 하차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여성 서효빈씨가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서씨 부모에게 보내진 문자다. 편집일을 하다 보니 밤 11시를 훌쩍 넘겨 일을 마치는 경우가 잦다. 집이 조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밤늦게 혼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면 행여 무슨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조바심이 난다. 그래서 콜택시를 부른 뒤 자신의 부모를 ‘알리미’ 수신자로 설정하고 택시를 탄다.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모른 채 혼자 택시를 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인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서울지역 콜택시 업체 6곳을 ‘브랜드콜택시’로 지정하고 총 4만1363대의 택시를 통해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안심귀가서비스를 요청하면 승객이 지정한 번호로 택시번호,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보내 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안심귀가서비스에 등록한 여성은 13만8천여 명.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호가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재 브랜드콜택시만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가 서울 시내 전체 택시의 95퍼센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 대전, 울산 등지에서도 브랜드콜택시를 지정해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도 지난 3월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여성안심택시’를 도입한다.

서울 브랜드콜택시: 나비콜 navicall.co.kr ☎1599-8255(최대 5명에게 문자 전송)/엔콜 dongbuncall.com ☎1688-2255(여성만 가능)/친절콜 kindcall.com ☎1588-3382(여성외 가능)/에스택시 staxi.co.kr ☎1577-0115/하이콜 hicalltaxi.net ☎1644-8200(2명에게 문자 전송)/케이택시 k-taxi.co.kr ☎1577-9977(3명에게 문자 전송)

지하철수사대 “성추행범, 소매치기 꼼짝마”
주변 도움 요청 어려운 경우엔 문자신고도 가능

하루 평균 7백30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울지하철. 이용객이 많은 만큼 범죄도 끊이질 않는다. 하루 평균 범죄발생 건수 15건, 승객들 사이에 주먹다짐으로 인한 폭력범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절도(소매치기), 성추행 순이다.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 불쾌하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옷차림에도 신경쓰이고, 매일 타는 지하철인데 불편하죠.” “봄이 되다 보니까 옷도 얇아지고 하는데요. 치마 같은 것 입을 때는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죠.”

지하철에서 만난 여성 승객들은 심심찮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 소식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지하철 출퇴근길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 대원들이다. 이들은 총 1백80여 명이다. 왕십리역에 본대를 두고, 강북(종로3가역)과 강남(이수역)에 각각 한 곳의 지구대와 출장소 2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각 수사대에는 20여 명이 4개 팀으로 나뉘어 순찰 및 잠복근무를 선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출장소에는 4명이 2명씩 교대로 하루씩 정복차림으로 순찰을 돈다. 그러나 한 출장소가 담당하는 역만 20여 곳이다 보니 하루 종일 순찰 다녀도 이용객들로

일러스트·유현호

부터 "(경찰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인력 부족으로 지하철 내 범죄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하철 수사대원들은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지킴이 역할에 임하고 있었다. 성추행 범죄의 경우 죄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러스트·유현호

지하철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자신고도 가능하다. 성추행 피해 여성들의 경우 수치심 때문에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지하철 고객센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상담원이 직접 지하철 수사대에 이를 연락해 조치를 취해 준다.

김성태 서울메트로 고객센터 실장은 "열차시간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매치기 성추행 등 범죄신고도 접수한다"고 말했다. 노선별 고객센터는 모두 24시간 운영된다.

서울지하철 고객센터 전화번호(문자수신도 가능) : 서울메트로(1~4호선) ☎1577-1234, 도시철도(5~8호선) ☎1577-5678, 철도공사 ☎1577-7788

늦은 밤, 인적 드문 길 안심하고 지나세요
CCTV 통합관제센터 만들어 위치추적 능력 강화

최근 인터넷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태권도 체육관 앞에서 자신보다 어린 초등학생을 발로 차 넘어뜨려 위험하게 만든 장면이 CCTV에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 사건은 어린이나 여성 등 범죄에 대한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주변에서 CCTV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4백8억원을 투자해 서울 중구, 노원구 등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현행 9천8백92개소에서 1만5천2개소로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학교주변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전문인력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검거율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02-2100-3606

여성 안심귀가 정류소
서울 인적 드문 12곳 밤 11시 이후 임시 정차

늦은 밤 버스에서는 종종 정류장이 아닌 곳에 세워 달라는 승객과 규정상 안 된다는 기사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진다. 조금이라도 편하고 싶은 마음보다 집까지 걸어가는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성 승객들 때문이다.

이런 여성들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9년부터 '여성 안심귀가 정류장'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여성 안심귀가 정류장은 밤 11시 이후 여성 승객이 미리 버스기사에게 요청하면 평상시에는 정차하지 않는 임시 버스정류장에 내려주는 제도다. 현재 서울 경기상고, 북한산 입구, 도봉구 쌍문동 등 인적이 드문 정류장 12곳이 운영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은 이용자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우연히 이 제도를 접하게 됐다는 한 여대생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다음뷰' 게시판에 "경우에 따라 집까지 가는 거리를 1백50~2백미터 단축시킬 수 있어 늦은 귀가가 잦은 여성들에게는 반가운 제도"라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G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담당관 ☎02-6360-4573

글·남창희 객원기자

다문화 자녀들 '왕따' 이젠 사라졌으면…

"미취학 아이에게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어려서부터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소녀는 동시통역사에 대한 꿈을 키웠다. 한국어, 한국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희망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20년 가까이 불려 왔던 '봉간바'라는 이름보다 '황경화'라는 한국식 이름에 더 익숙한 결혼 5년차 베트남 새댁을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났다.

황경화(24)씨가 베트남 호찌민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이사'온 것은 2007년의 일이다. 남편과의 결혼을 계기로 한국에 왔지만 사실 결혼 전부터 외국생활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동시통역사를 꿈꾸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결혼 이민자들의 경험담은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고 친절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행복하다"는 등 한국 생활에 대한 칭찬 일색이어서 오히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솔직히 결혼 전에는 낯선 나라에서 살기 힘들 것이라 생각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고향 사람들 중 한국으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용기를 냈지요."

그런데 그가 막상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오고 보니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은 친정 가족들이 걱정할까 우려한 베트남 신부들의 '효심'이 만든 '판타지'였던 것이다.

"말 안 통할 땐 속상해… 괴롭고 미안했죠"

가장 힘든 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한국어가 미숙한 황씨와 베트남어를 모르는 남편과 시부모. 국제결혼으로 갑자기 한가족이 된 이들이 서로 이해해 보려 노력은 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오해들은 피할 수 없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오해가 생길 때마다 답답하고 속상했어요." 그는 가장 힘든 점이 만약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제가 아니라 말이 잘 통하는 한국 여자를 며느리로, 아내로 뒀다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들 때였다고 한다. "그로 인해 죄송스런 마음이 들어 정말 괴로웠죠."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발음이나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와 불편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사회,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도 안타까웠다. 친정인 베트남과 비슷한 듯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결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이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집에서 가까운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황씨의 불안감과 답답한 마음은 차츰 해소됐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한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알려 주시니 언어에 대한 갈증이 자연스럽게 풀렸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이 황씨에게 준 즐거움은 배움에 대한 충족으로 그치지 않았다. 주위에 친한 친구도 없이 집안에서 살림만 하며 지내야 했던 그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얻을 수 있

는 일종의 '해방구'였다. 남편이나 시부모 등 다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도 있었다.

"한국요리를 배우는 날에는 집에 가서 시부모님께 그날 배운 요리들을 해드리는데, 그럴 땐 꼭 맛있다고 칭찬을 해 주세요. 배운 것과 다른 맛이라 자신이 없는데도 맛있다는 칭찬과 '소질이 있다'는 격려를 받으면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주고 싶어요

아무 걱정 없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한 듯 보이는 황씨지만 아이(딸·4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자 눈빛이 흐려졌다.

"얼마 전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전에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아이가 점점 커 가면서 엄마의 한국어가 부족해 아이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미안함도 커졌다. 다른 한국 엄마들처럼 한 글도 척척 가르치고 싶었지만 오히려 본인의 미숙한 발음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앞으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가정에서 학습지도를 받지 못해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은 끝이 없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에겐 '방과후학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미취학 아동들에겐 아직 충분한 지원이 없어요. 입학 전에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부딪히게 될 차별 문제도 또 다른 고민거리다. 혼혈에 대한 차별, 다문화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인한 '다문화 왕따'에 대해 선배 다문화가정 엄마들에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은 커졌다.

"아는 분들 얘기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왕따'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요. 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사회 전체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바꾸기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자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도 황씨에겐 여전히 큰 고민이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결혼 이민자들은 20세 전후의 어린 나이에 자기 나이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목적이 있는 결혼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런 시선을 접할 때마다 상처받게 돼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꿈을 안고 한국으로 시집와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선을 가져 주세요." G

글·이윤진 객원기자 / 사진·장은주 기자

황경화씨가 자신에게 절실한 도움을 주고 있는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드리세요,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가족부는 가족 교육 · 상담 ·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들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 **한국어 교육** 전국 1백59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과 한글교육지도사에 의한 방문교육.

2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 'Rainbow+'** 8개 언어로 제작되는 한국생활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3 **통 · 번역 서비스**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4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한 이주여성 긴급전화(1577-1366/24시간 지원) 운영. 전국 18곳에 이주여성쉼터 운영.

5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양육 가정방문 지도와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이중언어 사용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6 **결혼이민자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 훈련으로 통 · 번역 요원 등 결혼이민자 적합직종 개발, 원어민 외국어 강사 활동 지원.

문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http://liveinkorea.mogef.go.kr/mfsc.center

강기정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남편 · 시부모도 다문화교육 참여해야"

전국 2백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뿐 아니라 이주 여성을 위한 고충 상담도 진행한다. 실제 이주 여성들은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는지 강기정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들어봤다.

센터의 역할은?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문화 교육, 자녀양육법 등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충 상담도 해준다.

주로 어떤 상담인가?

초기 이주 여성들은 한국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외에 남편과 시부모의 태도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시부모의 고압적인 훈육 방식·무뚝뚝함에 힘들어한다. 어떤 가정은 아예 외출 자체를 못 하게 해 센터 방문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알선 업체가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심어준 선입견 때문이다. '자꾸 외출하다 보면 도망간다' 등이 그 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와서 6개월 동안은 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관습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적응이 수월해지는데, 초기 방문도 못 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이다. 일부 가정에선 남편들이 "센터에 3개월을 보냈는데 부인이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며 센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최소 6개월은 적응기로 보고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주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가?

역시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 안 돼 답답한 것도 문제지만, 시부모들은 한국어를 잘 몰라 반말을 하면 "버릇없다"고 타박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 한국어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 여성도 있다.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여성의 가정은 자녀 교육에 있어 이중 언어 사용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온 여성의 가정은 모국어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남편과 시부모들도 함께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다.

남편이나 시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없나?

센터에서는 배우자/아버지/시부모 교육 등 대상별 교육과 통합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이주 여성의 나라에 대해 체험해 보는 것이다.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참여 장려를 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참여율이 떨어진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배우자와 시부모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꼭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게 홍보가 됐으면 한다. 아울러 이주 여성이 공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의 경우 자녀의 출산과 양육 환경도 문제가 된다.

공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시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다. G

글·박근희 기자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나도 한마디'

- 남편과 시부모 교육 필요해요.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만 강요하기보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 한국 음식, 적응기가 필요해요. 맵고 짠 한국 음식, 처음부터 잘 먹을 수 없어요. 차츰차츰 배워나가고 싶어요.
-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할 때마다 진짜 싫어요.
- 모국어 쓸 수 없어 힘들어요. 한국말만 쓰게 해요. 아이에게도 모국어 가르쳐주고 싶어요.
- 잠자리, 의견 존중해 주세요. 아내로 생각하고 부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소방서 맞아? '119' 있으니 맞네!

을지로 119안전센터, 공공건물 같지 않은 효율적 동선·아름다운 디자인 자랑

을지로 119안전센터는 건축가 류재은씨의 설계로 2010년 완공돼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과 서울시건축상 우수상을 받았다. 기존의 공공건축물의 권위적 형태에서 벗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어우러지는 미관을 갖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건축됐다.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공공건물이 너무 성냥갑처럼 똑같은 모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TV나 영화에 나오는 외국 건물들의 디자인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이곳에 부임했는데, 창이 크고 많아서 채광도 잘되고 외부상황도 잘 파악돼 좋습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 중부소방서 을지로 119안전센터에서 만난 신봉섭 센터장의 말이다. 소방사 문상현씨도 "디자인적으로만 멋진 것이 아니라 대기실, 휴게실, 회의실 등이 편안하고 출동을 하기에도 효율적인 동선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을지로 119안전센터는 이라크계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축상을 휩쓴 '을지로 119안전센터', 권위적인 느낌의 공공건물 형태를 탈피,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살렸다.

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끝나는 지점에 있다. 건축가 류재은씨의 설계로 2009년 완공돼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과 서울시건축상 우수상을 받았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어울리는 미관 갖춰

이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권위적 형태에서 벗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어우러지는 미관을 갖춘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건축됐기 때문이다. 을지로 119안전센터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소방서의 이미지가 강조됐고, 주요시설을 경사진 잔디밭으로 덮어 열손실을 최소화했으며, 반투명 셔터·대형 유리창 등을 설치해 전력소비가 최소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

류씨는 파이 조각처럼 생긴 지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름다움을 불어넣기 위해 3개의 상자형 공간을 만들고 용도에 따라 각각 소방차 주차장, 상황실, 소방관이 머무는 대기실로 나눴다.

그는 개성 있는 디자인 못지않게 기능적인 소방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에, 소방차의 출동을 지켜보는 상황실을 통유리창으로 만들어 외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자인했다. 또 소방관이 대기하는 구급대기실엔 디자인플라자 쪽으로 향하는 돌출 창을 뒤 외부 전경을 바라보며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연면적 9백7.9제곱미터(2백74.6평). 을지로 119안전센터는 지금까지 건축상을 받은 공공건축물 중 가장 작지만 지방 소방서 관계자는 물론이고 건축을 전공하는 외국 학생들까지 견학을 오는 명소가 됐다. G

글·서일호 기자

시 건축

을지로 119안전센터의 소방차 주차장. 반투명 셔터를 설치했다.

시 건축

작은 박스 위에 큰 박스를 올린 형태로 건물이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줘 소방서의 역동성을 살렸다.

설계자 류재은 '시건축' 대표

"디자인 살려도 공사비는 똑같아요"

조선DB

류재은 '시건축' 대표

"매일 화재와 싸우며 생명을 거는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건물 하면 떠오르는 권위적인 양식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을지로 119안전센터를 설계한 건축가 류재은(58 · 시건축 대표)씨는 "긴급사태가 생기면 조금의 지체도 없이 바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작은 박스 위에 큰 박스를 올려 옆에서 보면 건물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류씨는 2007년 서울시건축상 대상을 탄 서울 논현동의 상업건물 '세븐헤븐'을 지은 건축가다. 지금까지 2백여 개의 건물을 설계했다. 류씨는 서울대 건축과(73학번)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건축설계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 워싱턴 등에서 7년간 일하다가 1989년 귀국했다.

을지로 119안전센터의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5백만원. 서울시에 있는 다른 소방서의 공사 예산과 같다. 그는 "디자인을 잘하면 예산이 더 든다는 건 오해"라고 밝혔다.

을지로 119안전센터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건물이다. 류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공(公共) · 사회라는 건축주를 상상해 건물을 만드는 것이 건축가로서 더 사명감을 갖게 한다"면서 "세금으로 짓는 공공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이라고 본다. 불 잘 끄고, 일 잘할 수 있게 짓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대여금고까지 추적해 '회수'

서울시청 김태호씨와 부산진구청 신정길씨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한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세정분야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고액체납자 세금 회수'에서부터 '납세 편의 시스템 개발'까지, 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세무 행정 업무의 달인 | 서울시청 **김태호씨**

압류 시행 한 달 만에 체납액 3억원 거둬들여

"일을 할 때 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조세정리' '납세 편의' '공무원 세무행정의 효율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일을 추진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박근희 기자

투철한 사명감으로 세무행정 업무의 달인으로 선정된 김태호씨. "내공은 공부를 통해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 인상과 달리 말투에서 강인함과 깐깐함이 느껴진다. '세무 행정 업무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울시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김태호씨는 2009년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기어이 세금을 받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행의 대여금고 압류'는 '은행의 대여금고는 손을 못 댄다'는 당시 금기 아닌 금기를 깬 '사건'이나 다름없었다.

"2009년 가을에 동료 직원에게 점심 도중 '자기 친구는 돈이 생기면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은행의 대여금고는 손을 못 댄다'는 게 일반적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자마자 대여금고와 관련한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대여금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은행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상했던 바 은행권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공문을 받은 은행연합회에서는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하지만 대여금고를 보호해 주는 것은 명백히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은행에 다시 보냈고, '협조하지 못하겠으면 협조불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해 추후 은행장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에 은행권에서도 결국 해당자 4백명의 명단을 보내왔다. 명단을 받은 그는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토록 했다. 꼼짝없이 대여금고를 압수당한 고액체납자들은 하나 둘 세금을 납부해 왔다.

"압류 다음 날 바로 1천6백만원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뒤에는 6천2백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시작으로 대여금고 압류 시행 한 달 만에 3억원이라는 체납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그의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2009년 5월에는 자동차세를 장기 미납한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무더기로 단속하는 데도 일조했다.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주소와 차량 소재를 파

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열흘간 특별 단속 기간에만 대포차 1백50대를 강제 견인, 공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계기로 대포차 상시단속 체제가 도입됐다.

올해로 공직 생활 22년째인 그의 별명은 '남산골샌님'이다. '술도 못하고 공부만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하지만 이런 별명이 싫지 않다는 반응이다. 현재도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재직 중 현장 실무 경험을 살린 책 3권도 펴냈다.

그는 "내공은 끊임없이 관련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야 쌓이는 것"이라며 "많은 공무원이 연구하고 공부해 모두가 맡은 업무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아이디어 창출의 달인 부산진구청 **신정길씨**

가상계좌 시스템 개발 등 납세자 편의 도와

부산진구청 구세과 신정길씨는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 세정 분야 근무만 18년째, 그의 수상 내용만 살펴봐도 입이 떡 벌어진다.

2006년 행안부 주관 지방행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자격증 가점제도 활성화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돼 장관 표창 수상, 2006~2008년 3년 연속 부산진구 혁신마일리지왕에 선정, 2009년 부산시 주최 '올해의 세정인' 선정 등 수상 경력만 30여 차례에 이른다.

"아이디어의 원동력은 호기심과 관찰,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어떤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것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그의 아이디어 중 가장 큰 성과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해 낸 '가상계좌 시스템'과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 안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모두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아이디어는 역시 '민원'에서부터 출발했다.

부산진구청은 2007년 8월 주민세, 재산세 등을 가상계좌 시스템을 활용해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이 성공리에 처리했다. 가상계좌 시스템이 성공리에 운영되자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신씨는 이를 통해 2007년 부산시 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받았다. "부산진구가 행안부 주관 전국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2009년 2월 전국 최초로 'ARS 가상계좌 연동 체납세 통합 안내 시스템'도 개발해 냈다. 이 시스템은 수신자 부담 ARS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상계좌 안내와 과·오납 환불 신청 등이 가능하다. 부산진구는 이 시스템을 처음 시행해 본 결과 고지서 용지, 우편요금 등을 없애 연간 8천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조선DB

신정길씨는 "무엇이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다 보면 불편한 것이 보이고 개선 사항을 기록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했다.

달인에 선정되고 나서도 고질 악성 체납액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부산시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지방행정에서 세정 업무는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세무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최고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G

글·박근희 기자

60일간 유럽을 자전거로 4천킬로미터 일주 박지용씨

"저의 열정에 '한국' 이미지가 바뀌었대요"

'G20세대'란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뛰고 경쟁을 주저하지 않으며 창조적인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세대의 상징처럼 일컬어지는 것이 해외여행이다. 해외여행을 자전거를 이용, 독특하게 해낸 G20세대가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다.

"자전거로 유럽 일주를 하고 나서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나는 한국에서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다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UCC 동영상 대상 수상자인 박지용(25·서강대 경영학과 4년)씨. 그는 2009년 7월 1일부터 60일간 자전거를 타고 유럽 각국을 여행한 뒤 그 기록들을 손수제작물(UCC)로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됐다. 중학생 때 꿈꾸었던 유럽여행의 소망을 자전거를 타고 이룬 그의 이야기는 내년에 발행되는 한 출판사의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에도 게재된다.

유럽 자전거 여행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행을 마친 후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충분히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서 사진과 영상을 모아 여행소개 UCC를 만들었어요. 나만의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만든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했어요. 공모전에서 대한민국 UCC 대상을 받으며 언론매체에 '세계 속으로 도전하는 청년'으로 소개도 됐고요. 출판사인 지학사에서 중학교 생활국어 편찬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내년에 지학사가 발행하는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 교과서에 제 이야기가 영상을 통한 의사전달 부분으로 소개될 겁니다."

조선DB

자전거 세계일주를 꿈꾸는 젊은이 박지용은

경력 제3회 대한민국 UCC 동영상 대상 공동 수상(유럽자전거여행)
소속 서강대 경영학과
좌우명 미친놈 소리 들어도 미친듯 살아라
개인미디어 twitter.com/nevermind7777 · nevermin7@gmail.com · cyworld.com/squashzzang7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전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스페인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프랑스 소도시 페르피냥(Perpignan)에서 만난 친구 세 명이에요. 잘 곳을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 저를 기꺼이 집으로 초대해 준 친구들이에요. 알고 보니 그 친구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유명한 기타리스트였어요.

우리는 밤새 그 친구 집에서 노래와 이야기로 꽃을 피웠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세계의 젊은 세대는 배려하는 마음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외에도 가슴 뜨거운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저의 열정적인 모습을 '한국'이라는 이미지로 재해석해 주셨어요."

영국에서는 프리허그를 통해 한국을 알리셨다고 들었어요.

"자전거 여행을 하는 60일 동안 수백 번의 응원 메시지와 박수, 미소 도움을 받으며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목적지인 영국에 도착하면 프리허그를 통해 그곳 사람들의 삶을 응원해 주어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2천4백57마일(3천9백64킬로미터)를 달려왔다'는 문구와 함께 런던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기 시작했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리허그에서 전 또다시 제 삶에 응원을 받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도 알리게 됐어요."

유럽과 우리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유럽'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훨씬 따뜻한 유럽이었어요. 여행하는 동안 처음 본 외국인 집에서 잔 게 세 번, 히치하이킹을 여섯 번 했어요. 그들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제 어려운 상황을 알아봐 주고, 기꺼이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조선DB

박지용씨가 60일간의 유럽 자전거여행 마지막 행선지로 도착한 영국 런던에서 펼친 프리 허그 이벤트. 그동안 여행에 도움을 준 이들에 대한 감사인사를 대신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도와줄 때마다 그동안의 내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쩌면 문화적 충격은 외국의 제도나 환경 모습이 아닌 그들의 따뜻함에 놀란 제 자신 안에서 온 것 같아요."

그들 모습에서 한국의 G20세대가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럽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젊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였어요. 제가 둘러본 유럽은 젊은이들의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세상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들은 다름을 무시하거나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 자전거여행을 보면서 그들은 제 젊은 도전정신의 아름다움 자체를 높이 평가해 주었지, 자전거 여행의 효율성이나 성과를 먼저 따지지 않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러한 젊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창업도, 벤처도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요.

앞으로 한국의 G20세대는 이러한 젊음의 다양성과 도전정신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문화를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매순간 그들의 행동과 말투에서 되새길 수 있었어요."

그는 우리 20대의 특징을 '거침없는 도전과 당당함'이라고 했다. 특히 글로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 멋져 보인다고 했다. 세계 속으로 도전을 하는 그의 모습도 멋져 보였다. 자전거 세계일주를 꿈꾸는 그는 세계에 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는 다른 G20세대에게 격려를 잊지 않았다.

"어디를 얼마나 다녀왔는가보다 무엇을 느끼고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유럽여행에서도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잠깐의 도시근교 여행에서도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을 통해 얻은 정보는 오래 기억되지 않지만, 그때 느낀 감동은 평생 가슴에 남아요.

꼭 여행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과 감동을 많이 경험하세요. 그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또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G

글 · 안시준 (연세대 경영학과 · JJUN0011@NATE.COM)

"나라 지키러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영주권자 병사들' 해마다 늘어… "병역 통해 정체성 찾았다"

멀리 이국 땅에 살면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하는 '영주권 병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외 영주권자의 입대숫자는 2004년 3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백91명에 이르렀다. 올해 제도 운용 8년째를 맞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2010년 6월 병무청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0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국외 영주권 등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한 모범병사 10명에게 병무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청년다운 순수한 기상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멀리 이국땅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국을 찾는 '영주권 병사들'도 그중의 하나다. 국외 영주권자들은 어린 시절 국외로 이주하여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된 사람들이다.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 병역 의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병무청이 2004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이란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정효 병무청 국외자원담당 사무관은 "제도 초창기와 비교하면 군 복무 지원자가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재외동포 중에는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동포 사회에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병역법상 '국외 이주자'란 영주권 취득 등의 국외 이주 사유로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35세(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계속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36세(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38세)부터는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이주자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영주권 유지한 채 병역 의무 이행

국외 이주자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출국하여 오랜 해외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외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정책적 고려도 감안됐다.

그럼에도 국외 이주자 중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병무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들이 군 복무에 자원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찾기다. 영주권자들이 입대를 결정하게 된 가장 직접적 동기는 부모의 권유 때문이다.

한국인 아버지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국을 자주 경험해야 하고, 군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입대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병역 의무자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영주권자 대부분은 비록 이국땅에서 성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지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군 복무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교역순위 13위의 경제 대국이며, 특히 IT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국 중의 하나다. 영주권자 중에는 비록 부모를 따라 해외로 이주했지만,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리는 데에는 대한민국만 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 중에는 모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해결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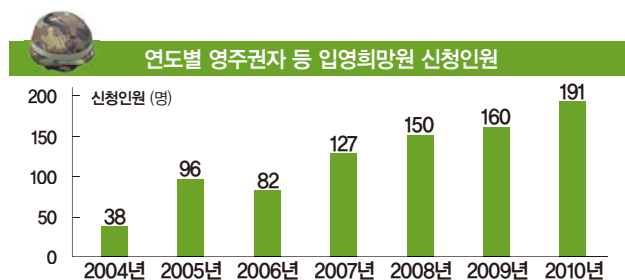
복수 국적자 등으로 대상 확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대상자는 초기에는 영주권 취득자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체류 자격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 또는 연기받은 사람만 해당되었다. 원래 이 제도의 취지가 군 복무와 영주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 초창기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자격 요건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교민 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영주권자 이외에 복수 국적자나 기타 국외 이주자들도 군 복무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10년 12월부터 종전의 영주권자는 물론 복수 국적자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입대가 가능하도록 개선·시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제도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영주권 병사들의 복무 수기(手記)집인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재외 공관과 해외 한인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해외동포 사회에 병역 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병역 의무를 마친 해외동포들이 서로 긴밀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최정효 사무관은 "어려서부터 국제 감각을 익힌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우리의 위상과 국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제도'는 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G

글·이상흔 기자

국가별 신청자 현황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05	143	93	29	24
브라질	과테말라	에콰도르	남아공	일본
21	29	17	16	39
영국	호주	필리핀	홍콩	기타
27	24	10	21	90
계	889			

신청에서 입영까지

영주권 병사가 되기 위한 자격 영주권 취득자와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5년 이상 체류 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유로 병역을 면제 또는 연기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조건부(임시) 영주권자 등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제출방법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와 재외 공관을 통해 입영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병무청은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 연고지가 없다는 점을 감안, 징병검사에서 입영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한 번의 입국으로 입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병역설계자를 개별 지정하여 궁금증이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고 있다.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병영생활 미리 체험 오랜 해외생활로 병영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 육군훈련소(논산)에서는 분기 1회씩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영주권 병사들은 일반 병사보다 일주일 먼저 입소해 한국의 역사와 군사용어 등 병영생활 적응교육을 받고 나서 훈련에 투입된다. 또한 부대배치 및 보직 부여 시에 특성과 능력발휘가 가능하도록 병역의무자의 특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휴가기간에 이주국으로의 국외여행 보장 정기 휴가기간에 이주국으로의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병사들이 복무를 마치고 귀가할 때 전역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백제 개로왕 일가의 몰살

장수왕 "할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소서"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다. 백제 근초고왕에게 목숨을 잃었던 고구려 고국원왕의 증손자인 장수왕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국력을 갖게 되자 장수왕은 이제 백제를 손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 백제의 수도 한성을 급습했다. 장수왕은 백제 개로왕을 잡아 공개 처형함으로써 증조부의 원수를 갚았다.

장수왕의 포로가 된 백제 개로왕은 지금의 서울 광진구 쉐라톤 워커힐 호텔 자리에서 처형당했다. 이로서 한성 백제 시대는 막을 내리고, 백제는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

475년 북위 풍태후가 보낸 사신이 평양에 와서 장수왕에게 공주를 달라고 강요하고 있을 때였다. 그해 백제 개로왕과 그의 가족이 한순간에 몰살당했다. 장수왕은 모두 보라는 듯이 그렇게 했다. 개로왕은 북위에 사신을 보내 장수왕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장수왕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북위의 풍태후를 자극했다. 무엇보다 개로왕은 북위에 보내는 국서에서 장수왕의 증조부인 고국원왕을 능욕했다.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선대에는 우의가 매우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선조인 고국원왕(釗)이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백제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선조인 근구수왕(須)께서 군사를 정돈하여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타 돌풍처럼 공격하여, 화살과 돌이 오고 간 지 잠깐 만에 고국원왕의 머리를 베어 높이 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위서〉 백제전)

국왕에서 사형수로 전락한 개로왕

백제왕은 과거에(375년)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인 사실을 북위 조정에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장수왕에게 그것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변 나라에 보여주고 싶었다. 475년 초겨울(9월) 장수왕이 고구려군 3만명을 동원하여 백제의 수도를 급습했다. 단번에 한성을 포위하였다. 백제의 개로왕은 성문을 열고 나아가 고구려 군대와 대결할 자신이 없었다.

고구려 군대는 4개의 군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2개의 군단은 한성의 배후 요새인 북성(北城)을 공격했다. 성벽을 사방에서 7일 밤낮으로 공격했다. 거대한 돌이 날아오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후 고구려군들이 성벽에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기어오르는 것이 반복되었다. 수비하던 백제군들은 이렇게 진이 빠져갔다. 북성이 먼

저 함락됐다.

이제 고구려 군대는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이미 포위된 개로왕이 살고 있는 남성(南城)을 공격했다. 겨울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자 그것을 정면으로 맞는 성문 쪽에 장작을 가득 쌓았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화살을 쏘고 돌을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불을 질러 성문을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시시각각 공포는 고조되었고, 저항의 의지가 꺾여서 항복하려는 자도 나타났다. 불에 탄 성문이 무너지고 고구려군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함락 직전에 이르자 개로왕은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고구려군 내부에는 그의 얼굴을 아는 재증걸루(再曾桀婁)와 고이만년(古爾萬年)이 있었다. 개로왕은 그들에게 발각됐다.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은 고구려로 망명한 백제장군이었다. 적에게 투항한 배신자의 가족이 무사할 리 없었다. 그들은 백제왕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개로왕은 그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고, 포박되어 얼굴에 침 세례를 받았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다.

백제 왕도가 보이는 곳에서 처형

고구려군이 성을 점령한 이후 대대적인 수색이 뒤따랐다. 개로왕의 부인과 그 자식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얼굴을 아는 자들이 앞장을 섰다.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한성에 있던 백제왕실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모두 체포되었다. 한성에서 나룻배에 실려 강을 건너 아차산으로 끌려갔다.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며 결박당한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지금의 서울의 쉐라톤 워커힐 호텔 자리였다. 궁정에서 태어나 백제라는 국가를 이끌었던 사람이 예전 자신의 신하에게 포박되어 사형장으로 끌려왔다. 그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형장의 사형수로 전락했다. 강 건너 자신이 살던 왕궁이 눈에 들어왔고, 한성 하늘 아래에는 개로왕 자신이 즉위할 때 환호하던 백성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으리라.

이제는 밑바닥이요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운명이 만들어놓은 대조적인 비극이 실현된 것이다. 함께 끌려온 자신의 부인과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최후의 시련만 참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몇 분만 지나면 그다음엔 불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귀한 신분의 왕과 그 가족이 모욕적인 치죄를 당하는 드문 풍경이 펼쳐졌다. 백제의 왕도가 훤히 바라다보이는 곳에서 말이다. 장수왕은 백제왕과 그 가족을 고이 죽이려 하지 않았다. 개로왕의 죄목이 나열되었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그 처형의식에 할애하였다. 형리가 포박된 그를 잡아채서 모루 위에 그의 머리를 고정시켰다. 연장은 둔탁한 소리를 냈고, 피가 떨어지는 머리가 땅바닥에 뒹굴었다.

백제왕과 그 가족의 처형의식이 끝나고 한성 사람들 가운데 젊고 쓸만한 사람은 모두 줄줄이 묶여 한강을 건넜다. 왕경에 살던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백제의 상류층 사람들이었다. 궁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귀족들, 중하급 관리들, 궁인들, 궁중 수공업장의 장인들과 강둑을 관리하던 토목기사들이 총망라되었다.

신라 자비왕, 충격에 명활산성으로 왕궁 이전

백제 개로왕은 풍태후가 장수왕에게 사적 원한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

〈일본서기〉 '웅략기' 20년 조를 보면 '(475년) 백제는 망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바다 건너의 일본 왕이 이 정도 놀랐다면 소백산 줄기를 경계로 고구려와 접하고 있던 신라 국왕은 어떠했을까.

소식을 접하고 노이로제에 걸렸을 신라 자비왕(신라 제20대·458~479 재위)을 생각해 보자. 자비왕의 입이 쩍 벌어졌다.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고 아래턱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장수왕이 개로왕과 그 가족을 잡아서 모두 학살했다고! 고구려 장수왕의 분노가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자비왕은 자신의 목을 확인해 보고 공포 서린 눈빛으로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삼국사기〉를 보면 이듬해인 476년 1월에 자비왕은 반월성을 버리고 명활산성으로 숨었다. 488년(소지왕 10년)까지 명활산성은 왕궁의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백제가 472년에 북위에 대해 펼친 외교는 백제 지배층의 오판일까?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은 436년 북연이 멸망한 후 가속화되었다. 백제는 끊임없이 국지전을 벌이면서 국력이 소모됐다. 북위에 대한 청병은 백제로서는 국운을 건 걸사운동(乞師運動 : 군사를 청하는 글월을 걸사표라 함)이었다. G 〈끝〉

글 · 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① 다시 주목받는 백제 근초고왕
② 비운의 고구려 고국원왕
③ 광개토왕의 역사무대 등장
④ 광개토왕, 운명을 걸머진 자
⑤ 후연에 들어선 고구려 정권
⑥ 북위에 맞선 장수왕의 결단
⑦ 고구려 망명한 북연 황제, 풍홍
⑧ 장수왕의 중국 남북조 외교전략
⑨ 북위에 사신 보낸 백제 개로왕
⑩ 장수왕과 북위 풍태후
⑪ 백제 개로왕 일가의 몰살

5월이면 영덕은 복사꽃으로 물든다. 사진은 지품면 복사꽃밭.

경북 영덕에 봄이 오면…

오십천 복사꽃이 톡톡 강구항 살진 대게는 툭툭

섬진강 매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울에도 벚꽃이 후두둑 지고 있다. 곧 헐거워진 땅에 들풀이 푸르게 번져갈 것이고 배꽃이며 자운영, 진달래, 철쭉, 복사꽃이 피어날 것이다. 조만간 영덕에서는 복사꽃 소식을 보내올 것이고, 때맞춰 대게가 그물 가득 올라올 것이다. 봄 햇빛을 받은 바다는 영롱하게 빛날 것이다.

봄 여행지로 영덕만한 곳이 없다. 골짜기마다 폭죽이 터지듯 복사꽃이 핀다. 숨을 들이마시면 달짝지근한 복사꽃 냄새가 가슴 가득 차오른다. 바다에서는 살이 꽉 찬 대게가 난다. 바다에 바짝 붙어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즐기는 봄바다 드라이브는 또 어떤가. 바다 위 휘영청 뜬 보름달을 보며 산길을 걷는 달빛 산행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준다.

5월이면 영덕에 복사꽃이 핀다. 무릉도원을 이룬다. 안동에서 영덕으로 넘어가는 34번 국도를 따라가다 황장재를 넘어서면 지품면에 닿는데, 동해로 흘러드는 오십천을 따라 복사꽃밭이 이어진다. 강변의 평평한 밭고랑은 물론 산비탈의 계곡까지 연분홍 복사꽃이 가득하다.

복사꽃 필 무렵이면 이곳 아낙들의 손길도 무척 바빠진다. 복숭아 씨알을 굵게 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복사꽃을 솎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건을 머리에 두른 수십 명의 아낙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꽃잎을 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장관이다.

영덕이 원래부터 복사골은 아니었다. 논과 밭뿐인 평범한 시골이었다. 하지만 1959년 사라호 태풍이 휩쓸고 가면서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다. 장비가 없어 쏟아져 내린 토사를 걷어낼 방법을 찾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다.

강변은 물론 산비탈 계곡까지 연분홍 복사꽃

이런 와중에 척박한 토질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복사나무를 생각했고 모래가 많이 섞이고 물이 잘 빠지는 토질 때문에 복숭아 수확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새옹지마라고나 할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복사꽃은 영덕대게와 함께 영덕관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영덕읍에서 옥계 유원지로 가는 69번 지방도의 달산면 일대도 온통 복사꽃 천지다. 오십천 지류인 대서천을 거슬러 오르면 옥계계곡 조금 못 미쳐 옥산리가 나타나는데 이곳의 복숭아밭도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 하늘을 떠받치듯 양팔을 벌린 모습의 검은 가지에 열을 맞춰 탐스럽게 매달린 복사꽃은 살아있는 예술작품이다.

복사꽃을 본 후 강구항으로 간다. 강구항은 영덕대게의 집산지다. 복사꽃이 피는 무렵은 영덕대게도 제철이다. 대게 철이면 강구항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쳐난다. 수협공판장은 아침부터 어선들이 실어온 대게로 가득하다. 대게를 앞에 두고 경매인과 중매인이 벌이는 눈치작전이 보는 이마저 긴장감에 젖게 한다.

대게는 몸집이 크다고 해서 대(大)게가 아니라 다리모양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디가 있어 대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영덕대게는 다

1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진 고래불해수욕장. **2** 복사꽃. **3**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빚어낸다.

창포말 등대는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어 바다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강구항은 대게의 집산지다.

리가 길고 속살이 꽉 차 있을 뿐 아니라 맛이 쫄깃해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되었다고 한다. 게를 싼값에 먹으려면 굳이 대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보다 저렴한 홍게(등딱지와 다리가 붉은 게)를 먹어도 좋다. 동해안 심해에서 서식하는 홍게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맛있다.

강구항에서 축산항으로 이어지는 918번 지방도로는 봄철 동해와 고기잡이 마을의 정취를 흠뻑 즐길 수 있는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약 35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길을 따라 금진리, 하저리, 대부리, 창포리, 대탄리, 오보리, 노물리, 석리, 경정리 등 동해와 맞닿아 있는 아담한 갯마을들이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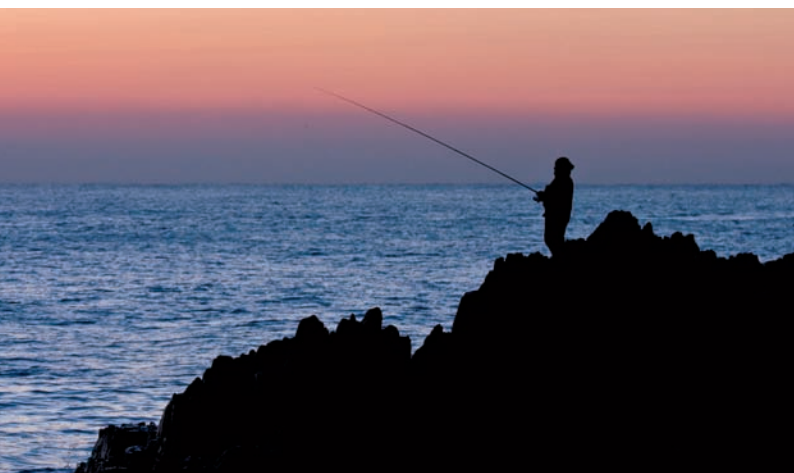
918번 지방도는 환상의 해안 드라이브코스

마을과 가까운 짙푸른 해안에는 소라와 전복을 따는 해녀들의 물질이 한창이고, 도로 주변에는 바다에서 갓 따낸 돌미역과 오징어, 가자미들이 따사로운 봄볕에 말라 간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가까운 바다에서 물결 따라 흔들리는 검은 점들을 볼 수 있다. 전복, 해삼, 멍게를 건져 올리는 해녀들이다. 오리발을 신은 두 다리를 물 위로 힘차게 뻗으며 자맥질해 들어가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길의 중간 지점에 해맞이 공원이 있다. 높은 바닷가 깎아지른 절벽에 눈부시게 하얀 등대가 서 있다. 산책길도 조성되어 있고 간이 찻집도 있다. 아침이면 붉게 물든 바다와 하늘, 그리고 오렌지빛으로 떠오르는 해를 구경할 수 있다. 바다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 산책로도 마련되어 있다.

최근에 강구항을 출발해 축산항을 거쳐 고래불해수욕장에 이르는 50킬로미터 도보해안길인 '영덕블루로드' 코스가 개통되었다. 하지만 코스가 너무 길어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석리어촌마을에서 축산항까지 6.7킬로미터 해안길을 골라 걸어볼 만하다. 대게 원조마을인 차유마을을 지나 축산항까지 쉬엄쉬엄 걸으면 2시간이면 충분하다.

달맞이 야간산행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해지기 한 시간쯤 전에 창포초등학교를 출발해 삿갓봉과 풍력발전사무소를 거쳐 영덕해맞이공원에 오른 뒤 온 길로 하산하는 코스. 약 6.7킬로미터,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산행로 일부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즐기기에 좋다.

강구항 어시장에서는 각종 해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부분 평탄한 길이라 슬리퍼를 신은 채로도, 건장한 아버지라면 아이를 무동 태운 채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한 시간가량 쉬엄쉬엄 걷다 보면 달빛을 받아 빛나는 밤바다를 볼 수 있다. 수평선에 걸린 눈부신 어화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렇게 감탄하며 걷다 보면 어디선가 '웅~ 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 풍력발전단지다. 24기의 거대한 발전기가 달빛 아래 우뚝 서 있다.

강구항 북쪽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창포리에 풍력발전단지가 세워진 것은 2005년 3월. 1997년 영덕읍 우곡리에서 큰 산불이 났는데 불은 창포리까지 번졌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산불은 마을 앞에서 딱 멈췄고 나무를 베어낼 필요 없이 풍력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었다.

달빛 아래 창포리 풍력단지도 장관

창포리 발전단지에 들어선 발전기는 모두 24기. 제주도 세화리에 풍력발전기가 있지만, 그것보다 큰 규모다. 하나의 크기가 기둥 높이 80미터, 양 날개의 길이가 82미터에 달한다. 이 바람개비들에서 1년에 9만6천6백80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된다. 영덕군이 1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아래에서 발전기를 보려면 목을 뒤로 90도 가까이 젖혀야 한다.

풍력발전단지는 낮에 찾아도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 높은 발전기들은 이국의 정경을 만들어낸다. 발전기 사이로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나 있어 자동차로 쉽게 오를 수도 있다. 낮에는 관광버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발전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고 그냥 발전기 사진만 찍기도 한다. 넓은 언덕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서 커다란 날개를 휙휙 돌리는 발전기의 모습은 분명히 신기한 볼거리임이 분명하다.

영덕에서 꼭 들러야 하는 해변이 있다. 고래불 해변이다. 장장 8킬로미터나 뻗어 있다. 아침 먹고 한쪽 끝에서 출발해 돌아오면 점심녁이다. 아이들과 함께 갔다면 삼사해상공원에 있는 '영덕어촌민속전시관'에 들러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대게잡이를 재현해 놓은 인형과 각종 어선의 모형, 어구 등을 전시해 놓았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원주 만종 분기점에서 중앙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서안동 IC로 나온다. 34번 국도를 따라 안동을 지나면 영덕. 경북고속도로와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된다. 영덕읍내에서 '해맞이공원, 풍력발전단지' 이정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풍력발전단지는 해맞이공원 맞은편에 있다. 승용차로도 올라갈 수 있으며, 영덕읍에서 30분 정도 걸린다. 달맞이 야간산행은 **영덕군청**(054-730-6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먹을 곳 강구항에 1백여 곳에 이르는 대게 식당과 판매점이 있다. 대게 말고 다른 해산물을 먹고 싶다면 강구항 다리 건너로 우회전해 대게 거리 길옆에 차를 세우고 물가로 난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된다. 대게와 함께 각종 회와 오징어·해삼·전복·멍게 따위를 파는 작은 횟집이 몰려 있다.

잠잘 곳 **칠보산 자연휴양림**(054-732-1607)은 고래불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칠보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동해비치관광호텔**(054-734-5400), **리베라호텔**(054-734-6887), **동해해상관광호텔**(054-733-4466) 등의 있다. 창포리와 삼사해상공원과 강구항 주변에 민박과 모텔, 펜션이 많다. **영덕민박**(stay.yd.go.kr)에서 숙소를 검색할 수 있다.

한 개인소장가가 수집한 명기와 문방구 컬렉션을 찍은 사진이다. 25 x 50 cm · 2008년

사진작가 구본창 작품전

그의 앵글엔 소소함도 예술이 된다

사진작가 구본창(58)이 서울 경복궁 앞 국제갤러리에서 5년 만에 작품전을 열었다. '구본창(Koo Bohnchang)'이라는 타이틀로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자신을 둘러싼 소소한 것들과 클래식한 오브제들의 미감을 '남다른 눈'으로 담아온 구본창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즉 작가로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30여 년을 회고하는 전시로 꾸며졌다.

조선DB

그러나 구본창의 회고전은 여느 회고전과는 사뭇 다르다. 작가의 사진을 주르르 내걸지 않고 구본창의 작업실에 있던 낡고 작은 오브제들을 갤러리로 끌고 나와 한 점의 대형 설치작업으로 만들었다.

전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섹션에는 작가가 유년 시절부터 모아온 갖가지 오브제들이 집대성됐다. 청자항아리, 선풍기, 외국잡지, 그리고 어린 구본창을 사로잡았던 '김찬삼 세계일주 무전여행기' 등. 지극히 내밀한 이 컬렉션은 구본창의 작업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가늠해 보게 하는 열쇠다.

갤러리 1층을 거의 채우다시피 한 커다란 테이블에는 각종 오브제가 프레임▶본▶박스로 분류돼 놓여 있다.

전시를 기획한 아트디렉터 김성원(서울과학기술대 교수)씨는 "구본창의 작업실을 찾았을 때 수백, 수천 점의 크고 작은 물건이 널려 있어 마치 르네상스시대 '호기심의 방(cabinet de curiosite)'을 연상케 했다"며 "그 컬렉션이야말로 구본창 작업의 뿌리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본창이 모은 것들은 값비싼 명품 컬렉션이 아니다. 시간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다. 하지만

4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작가의 지난 30여년을 회고하는 것으로 작업실에 있던 낡고 작은 오브제들을 갤러리로 끌고나와 대형 설치 작업을 만들어 냈다.

동경 민예관의 야나기 무네요시 곱돌 컬렉션을 찍은 사진이다. 97 x 76 cm · 2007년

구본창은 정서와 혼이 담긴 눈으로, 이 사소한 삶의 편린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 그것들에 '숨결'과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구본창이 간직해 온 사소한 물건들과 각종 이미지를 통해 구본창의 '혼'이 담겨 있는 '그 어떤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또 개인 구본창 삶의 태도와 사진작가 구본창의 작업세계가 절묘하게 교차하는 지점도 만날 수 있다.

1층엔 작업실 오브제들로 대형 설치작업

두번째 섹션에서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는 1980년대 독일 유학시절 작업과 귀국 후 작업했던 일련의 작품이 나왔다. 또 세번째 섹션에는 구본창이 지인 등의 컬렉션을 소재로 찍은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재일동포 건축가 이타미 준의 소장품인 백자 달항아리, 일본 오사카 동양도자박물관의 백자 컬렉션, 프랑스 기메박물관의 조선 탈 컬렉션, 동경 민예관의 야나기 무네요시 곱돌 컬렉션을 찍은 사진이다.

구본창은 이렇듯 사람들이 훌쩍 지나치기 십상인 작고 오래된 소재들의 빛나는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아름답고도 슬프게 그리고 섬세하게 담아낸다. 세숫비누를 찍어도 때깔 좋은 새 비누가 아니라, 뭇사람들에 의해 닳고 닳아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를 찍는다. 우리 생(生)도 이처럼 쓸쓸히 소멸될 것이라고 속삭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쓸쓸함, 소소함에 깃든 미감과 진실을 구본창은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낸다.

쉰줄을 넘어섰는데도 미소년처럼 맑은 미소를 짓는 사진작가 구본창은 평범한 샐러리맨 출신이다. 서울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들어간 그는 파견근무를 떠났던 독일에서 갑자기 방향을 '확' 틀었다. 반듯한 샐러리맨에서 늦깎이 '예술전공 대학생'으로 말이다.

결국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하고, 디플롬을 취득한 구본창은 국내에 돌아와 '만드는 사진' '예술로서의 사진'을 선보이며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국내외에서 3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갖고, 은은하게 빛나는 백자사진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구본창 작가는 "낡고 이름없고 한찮은 것들, 남들이 쉽게 귀기울이지 않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대표작이 된 백자 작업도 그런 관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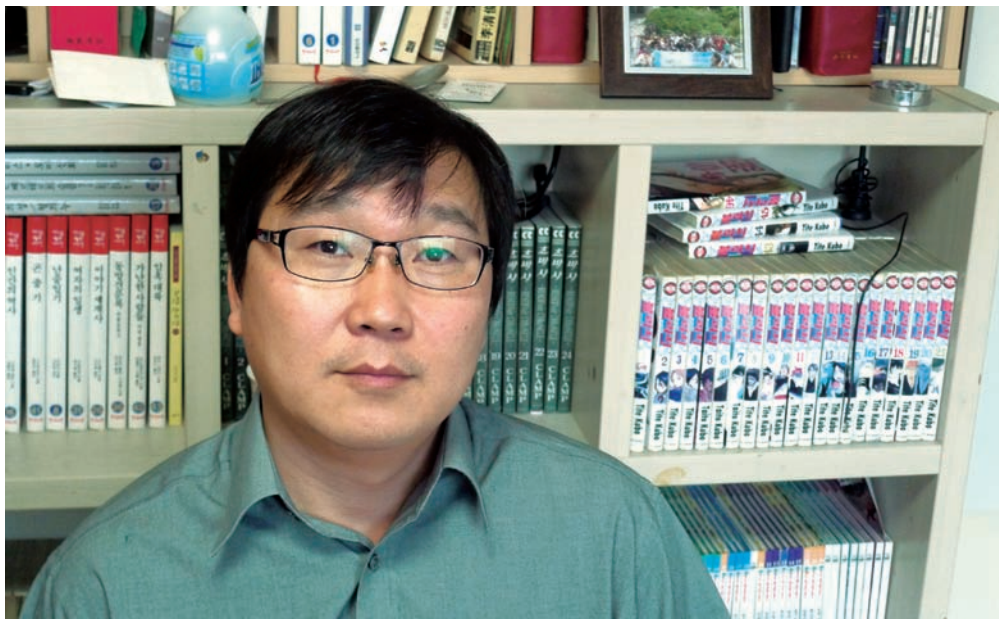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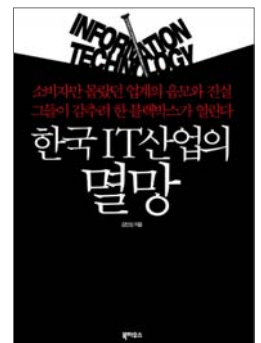
글 · 이영란 (헤럴드경제 미술담당 선임기자)

문의 · 국제갤러리 ☎02-735-8449 www.kukjegallery.com

〈한국IT산업의 멸망〉 펴낸 김인성씨

“국제적 표준과 개방만이 한국IT 살 길”

리눅스와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포털업체의 시스템 설계, 구축, 컨설팅을 해온 저자 김인성씨는 책 제목 그대로 ‘한국 정보기술산업의 멸망’을 고발한다. 그가 지적하는 모습은 한국 정보기술의 현실이다.

한겨레DB

김인성씨는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국제적 표준과 개방이라는 일관된 정책만이 한국IT산업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북하우스 펴냄 · 1만5천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아닌,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혁신적 상품입니다.”

〈한국IT산업의 멸망〉의 저자 김인성씨는 아이폰이 창의적 시도와 혁신이 집중된 정보기술 제품의 대표격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20여 년간 리눅스와 오픈소스를 개발하고 포털업체의 시스템 설계, 구축, 컨설팅을 해온 그는 책 제목 그대로 ‘한국 정보기술산업의 멸망’을 고발한다. 엔지니어가 프로그램과 제품 개발 대신 도발적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이유를 묻자, “0과 1로 된 코드로는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지만, 글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고유의 상황을 강요하는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폐쇄적 정책이 ‘촌스러움’을 넘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990년대 말 국내 벤처 열풍 속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창의적 서비스들이 국외 시장 진출에 모조리 실패하고, 수년 뒤 이와 유사한 서비스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한 서비스와 기술의 무대였지만, 이내 사라졌다.

김씨는 “언어의 문제도 있지만 창의력 손상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 게시글 삭제, 공인인증서 등과 같은 규제는 한국을 고립화시켜, 국외 진출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준 어긋나는 개별국가 특수성은 설 자리 없어

국경이 의미가 없는 인터넷에서는 국가별 서버를 두고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사용자가 언어만 선택해 쓰도록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용자를 상대로 스스로 이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만들어 인터넷에서 새로운 금맥을 캐고 있다.

또 그는 “정보기술 경쟁에선 한국적 특수성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어긋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국제적 표준과 개

방이라는 일관된 정책만이 살길"이라고 했다. 김씨는 아이폰이 국내에서 일으킨 변화의 역설도 지목한다. 이동통신사의 로고마저 허용치 않으며, 모든 것을 '애플 식대로' 고수하는 애플의 비타협적인 폐쇄성이 역설적으로 국내의 갈라파고스적 정보기술 환경을 깨뜨리고 있다는 얘기다.

아이폰 덕분에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저질러왔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가 드러나고 하나 둘 사라지게 됐다. 개방과 표준을 신봉하는 리눅스 개발자답지 않게 그는 "지금 우리에게 아이폰은 선한 것"이라며 "여태껏 무엇도 바꾸지 못했던 한국 인터넷의 폐쇄성을 개선시키고 이동통신 업체들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 시장과 단절된 한국 전자상거래 되살려야

이 책은 모바일과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포털의 닫힌 생태계, 콘텐츠 불법복제, 스마트TV,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쉬운 용어로 다뤄 무난하게 읽힌다. 배터리도 바꿀 수 있고, 디엠비(DMB)도 볼 수 있다는 옴니아2가 '아이폰 대항마'로 70만여 대가 팔려나갔지만, 고객 대다수가 '안티'가 되고 유례없는 소비자 보상 요구에 부닥쳐 있는 게 단적인 사례다.

김씨가 지적하는 모습은 한국의 기괴한 정보기술 현실이다. 그동안 정보기술 종사자들과 '오픈웹' 등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어 온 이슈들을 대중적 무대로 끌고 나온 것이다.

그가 대표적으로 지목하는 모습은 국내 사용자에겐 너무 익숙해져 있는 풍경이지만, 이는 국내 정보기술 환경이 글로벌 환경·흐름과는 동떨어져 고립된 '갈라파고스'라고 불려온 이유이기도 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액티브엑스(X)를 강요하는 금융결제 서비스, 아무 기능 없이 비용만 들이는 공인인증서, 바이러스처럼 사용자를 괴롭히는 보안프로그램 등이 한국의 전자상거래를 세계 시장과 단절된 '인트라넷'으로 만든 현실이 책에 생생하게 표현돼 있다. 방통위는 이 책이 소개되기 직전 마침내 2014년까지 국내 1백 개 주요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들어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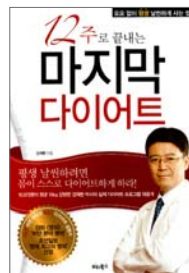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요구하는 인터넷실명제(본인확인제)와 액티브엑스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에 각종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지만,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해외에 유출되어 거래된다. 현대캐피탈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농협 전자금융 시스템 마비에서 보듯 허울뿐인 게 IT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G

글·구본권(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새로 나온 책

이승만과 그의 시대

이주영 지음 | 기파랑 펴냄·9천5백원

출생에서부터 타계까지 90년에 걸친 이승만의 한 평생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국내 이승만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저자는 국내외의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를 쓰듯 이 책을 정리했다. 청년기의 독립협회 활동, 중년에서 노년에 걸친 독립운동, 광복 직후의 건국운동, 대통령 재임기간의 통치행위 등 역사적 업적을 담았다. 대한민국의 건국, 호국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다.

12주로 끝내는 마지막 다이어트

강재헌 지음 | 비타북스 펴냄·1만2천원

매번 '의지' 앞에서 굴복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고 믿고 있는 당신에게, 저자는 식욕을 참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1만73명의 비만 환자를 1인당 10킬로그램 감량시킨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전문가로,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한다. 4단계로 구성된 1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요요현상 없이 감량된 체중을 평생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하워드 S. 프리드먼, 레슬리 R. 마틴 지음
최수진 옮김 | 쌤앤파커스 펴냄·1만6천원

1천5백명의 인생을 80년간 추적한 사상초유의 수명 연구 프로젝트. 무슨 짓을 해도 오래 사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낙천적인 사람보다 걱정근심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식습관, 같은 단편적인 요인들이 아닌 성격, 인간관계 등이 건강과 수명에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을 내린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왜 어떤 사람은 더 건강하게 잘 사는지 보여준다. 풍부한 사례와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건강과 수명에 대한 의외의 진실을 펼쳐 놓는다.

심야 치유 식당

하지현 지음 | 푸른숲 펴냄·1만3천원

정신과 의사 하지현의 심리 에세이. 마음이 춥고 배고플 때 가고 싶은 곳 심야 치유 식당. 관계와 소통, 직장인들의 심리 환경과 양상에 주목했다. 기존의 심리서들과는 색다른 행복의 정의와 해법을 내린다. 이 책은 전직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른 여덟 명의 손님들과 엮어가는 각기 다른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픽션 형식을 도입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 치유 에세이를 선보인다.

한국·포르투갈 수교 50주년

'거북선' '나우' 기념우표로 만났다

〈포르투갈 무장상선〉

한국과 포르투갈이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포르투갈은 유럽 이베리아 반도 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지중해·북서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의 네 지역을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이다. 포르투갈은 1961년 수교 이래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계속 지지해 준 전통 우방국이다. 포르투갈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조선DB

지난 4월 15일 발행된 한국 포르투갈 수교 50주년 기념우표. 한국의 '거북선'과 포르투갈의 '나우' 2종으로, 우표 전지 배경에는 조선 후기 수군조련도가 소개돼 있다.

한·포르투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고선(古船)을 담은 우표가 두 나라에서 동시에 발행됐다. 우표 전지 배경에는 조선 후기의 수군조련도(국립진주박물관 소장)가 소개돼 있다. 전국 우체국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판매된 기념우표는 2종으로 각 70만 장(총 1백40만 장)이 발행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와 포르투갈 CTT(한국의 우정사업본부)의 공동 작업을 통해 진행됐다. 수개월의 자료조사와 협의기간을 거쳤고,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거친 뒤 발행됐다.

전주서 포르투갈 영화 특별전도 열릴 예정

우리나라는 '거북선'을 담았고, 포르투갈은 리스본과 인도 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16세기의 무장상선 '나우(Nau)'를 담았다.

기념우표에 소개되는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침략을 예측하고 1592년에 제작한 조선시대의 신형군선이다. 거북선은 배 위를 판자로 덮고 송곳칼을 꽂았다. 배 앞은 용머리로, 배 뒤는 거북꼬리 모양으로 만들고, 대포구멍은 좌우로 6개씩, 그리고 앞뒤로도 6개씩 낸 형태이다.

해전의 명장 이순신은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운영하여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의 정신으로 전쟁 7년간 23번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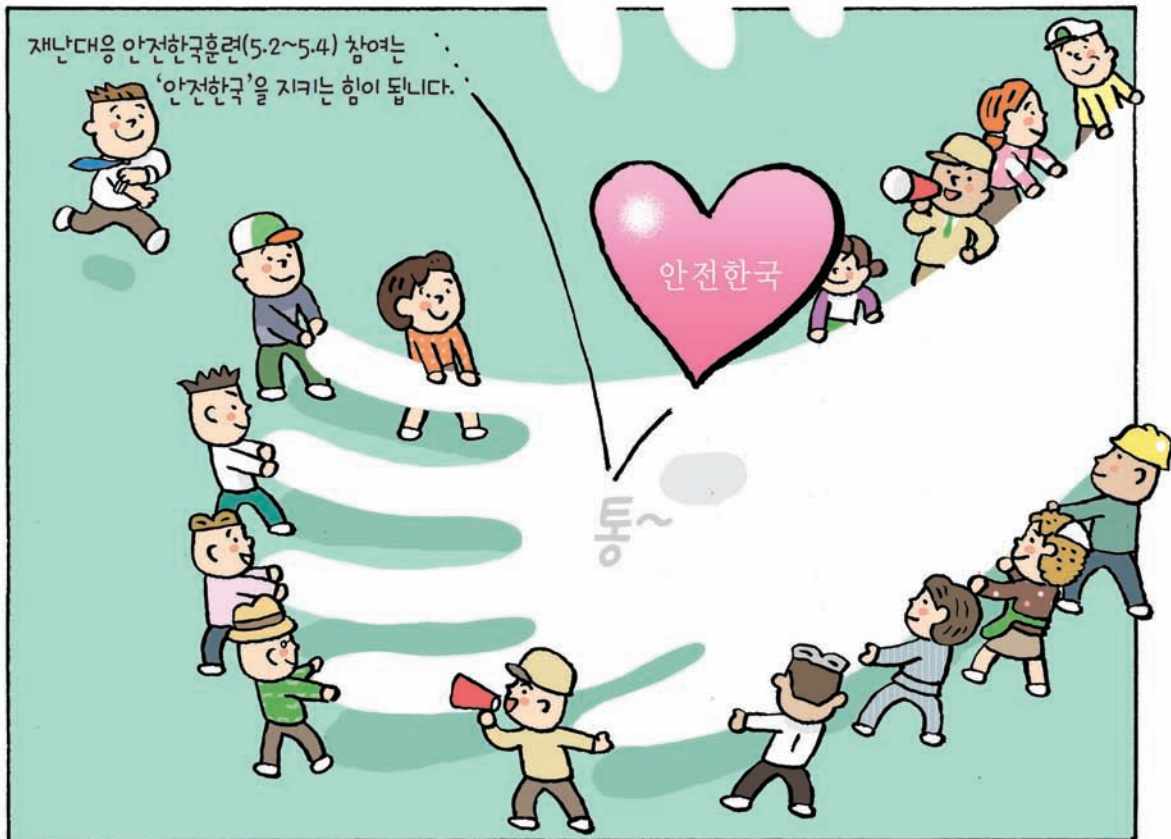
포르투갈의 나우(Nau)는 16세기 무장상선으로 이전 선박과는 달리 많은 선적이 가능하여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었다. 식량과 승객을 함께 수송했으며 해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포도 장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나우는 3개의 갑판과 3개의 돛대(2개의 사각 돛과 1개의 삼각 돛), 선수루(船首樓)와 선미루(船尾樓)를 두고 있으며 1백20톤에서 1천2백 톤의 적재량을 지녔다. 나우는 당시 리스본과 인도 고아 간 무역항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발행뿐 아니라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포르투갈 해군 '사그레스함(NRP Sgres)'의 인천항 방문(지난해 8월 11~15일)을 시작으로 올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포르투갈 영화 특별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양국의 수교기념일인 지난 4월 15일에는 주한포르투갈대사관 주최로 기념행사가 열렸고,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이 주한포르투갈대사관을 방문해 엔리끄 실베이라 보르지스(Henrique Silveira Borges) 주한포르투갈대사에게 기념우표를 증정했다. G

글·이미령 인턴기자

유비무환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무비유환(無備有患)입니다.

〈장자 교양강의〉

니체와 스피노자, 장자와 통하더라

푸페이룽 지음 · 심의용 옮김
돌베개 펴냄 · 1만2천원

동서양의 사유체계가 얼마나 다른지 강조하는 책들을 자주 접한다. 뿌리내리고 살아온 삶의 근거가 다르고 집단적 삶에 주어진 과제가 달랐으니, 이를 해결하려는 철학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곤 한다. 일견 다른 듯하지만 속 깊은 곳을 바라보면 유사한 면도 의외로 많다. 이즈음 서점가에 동서철학의 차이보다 공통점을 도드라지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풀어 가는 책들이 눈에 띄는 것도 학계가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기에 그렇지 않나 싶다.

〈장자 교양강의〉를 쓴 푸페이룽은 이력만 보더라도 동서철학의 공통점을 잘 소화해 대중에게 알려줄 만한 학자라는 믿음을 준다. 대만대학 철학과를 나왔고,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벨기에의 루뱅가톨릭대학과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에서 동양고전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 과문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로 동서양을 종횡무진하며 활동한 학자는 드문 듯하다.

〈장자〉의 첫 단락은 유명한 대붕 이야기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변해 등이 몇 천리나 되는 '붕'이 되어 남쪽 바다로 떠난다는 이야기다. 〈장자〉 읽기의 묘미가 이 대목에 있다는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을 터다. 이야기의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럴 터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비범한 잠재력에 대한 장자의 믿음을 깔고 있다. 보잘것없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되면 어딘가 아쉽다. 그럼에도 많은 해설서는 여기서 멈춘다. 푸페이룽은 다르다. 니체를 들어 이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우면서도 풍요롭게 설명해 준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인간의 정신은 세 번 변화한다. 먼저 낙타로 변하고 다음에는 사자로 변하며 마지막에는 어린아이로 변한다"고 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치다. 장자가 비약적인 변화를 말했다면, 니체는 단계별로 변한다고 본 차이만 있을 따름이다. 니체가 말한 낙타는 '수동적으로 타인의 명령을 듣고 일하는 존재'를 뜻한다.

사자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고 묻는" 단계다.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로 변화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 어린아이는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떠하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수"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는 노자의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라는 말과 맹자의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 그리고 예수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해 희망과 가능성으로서 어린이의 상징을 풀어낸다.

동양의 고유성에 대한 깊은 통찰도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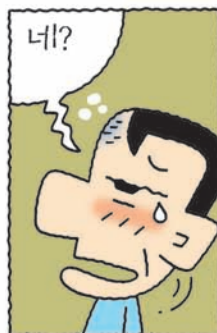
〈장자〉에는 그 유명한 조삼모사 이야기가 나온다. 밤송이를 오전에는 세 알, 저녁에는 네 알 준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화를 냈다. 그래서 오전에는 네 알, 저녁에는 세 알 준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마냥 좋아했다는 내용이다.

이 우화는 "전체를 보지 못하면 기쁨과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곤경에 빠진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지은이는 한발 더 나아가 스피노자와 장자의 유사점을 찾아낸다. 스피노자는 영원의 빛 아래에서 만물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만약 영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득실과 성패에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을 터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사는 삶의 지혜에 대해 두 철학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동서양을 넘나들며 〈장자〉를 이해 가능하게 풀어 준다는 점에서 〈장자 교양강의〉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이 책이 오로지 비교철학 관점에서만 〈장자〉를 풀고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길. 붕이 왜 하필이면 남쪽으로 날아갔다고 했는가 하면, 고대 중국인들은 남쪽을 빛의 상징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 지혜를 추구하는 각오를 드러내기 위해서라 풀어 낸다. 동양의 고유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장자〉를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G

글 · 이권우 (도서평론가)

고개를 숙이십시오…

글과 그림 · 최영순

칭찬받았을 때가 아니라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겸양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 J. 파울(독일의 소설가)

할아버지가 "허허허"·손자가 "하하하"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뮤지컬 〈브레멘 음악대〉는 2006년 초연 이후 관객 35만명을 돌파했고, 5년 연속 유료객석점유율 75퍼센트를 달성했다. 2009년 독일 브레멘 주정부 우수공연으로 선정됐고, 2011년 한국 최초로 상하이 세계 아동국 페스티벌에 초청된 작품이다. 3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뮤지컬로, 한국의 멀티미술이 잘 접목되었다.

〈브레멘 음악대〉는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는 동물들의 모험이야기다. 호기심 많은 당나귀 동키, 수탉처럼 노래하고 싶은 암탉 러스티, 배려심 많지만 입 냄새가 심한 강아지 도기, 고상한 음악을 사랑하는 귀족고양이 캐티 등은 음악대가 되고 싶어서 브레멘으로 떠난다.

동물들은 우여곡절 끝에 브레멘에 도착하지만, 악기를 도둑맞아 해산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악기를 되찾아 결국 꿈을 실현한다. 한국판 〈브레멘 음악대〉에서는 새로운 무대, 의상, 안무를 만나볼 수 있다. 무대 위에서의 신나는 라이브 연주와 텀블링, 마술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29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44-5955

〈브레멘 음악대〉

오즈의 마법사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라이선스 버전이다. 1백 년이 넘도록 전 세계 사람에게 사랑받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는 1903년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세기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가족 뮤지컬이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마음까지 꿈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일시 2011년 5월 1~29일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관람료** VIP석 6만6천원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A석 3만3천원 에메랄드시티석 7만7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70-7124-1740

모차르트 유럽 뮤지컬 바람을 일으킨 뮤지컬 〈모차르트〉가 돌아온다. 세계적 극작가가 풀어낸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의 역동적인 인생, 클래식한 음악과 소재를 록과 재즈의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화려한 5백여 벌의 의상과 가발,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 미술을 만나볼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24일~7월 3일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6391-6333

〈모차르트〉

무용 **코펠리아** 국립발레단이 1997년 최초로 시도한 '해설이 있는 발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전막 해설발레 〈코펠리아〉가 다시 찾아온다. 코펠리아는 지난 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발레 작품으로서 매진신화를 기록했다. 공연 중간 해설자가 나와서 발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음 전개에 대해 관객들과 함께 상상하고 풀어가는 형식이다. 발레가 어려운 관객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일시 2011년 4월 30일~5월 8일 **장소**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6181

전시 **어둠 속의 대화** '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25개국 1백50개 도시에서 열렸다.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보여준다. 전시의 모든 과정은 완전한 암흑 속 공간에서 전문 가이드 인솔하에 이뤄진다. '어둠 속의 대화'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오픈런 **장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 버티고타워 9층 **관람료**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13-9977

콘서트 **최현우 매직 콘서트 '이상한 나라의 현우 라스트미션' 부산** 2010년 서울, 부산 연말 전회 전석 매진을 기록한 최현우 매직 콘서트. 이번 콘서트는 관객의 요청에 의한 앵콜공연이다.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 않는 미스터리와 판타지를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전 세계가 인정한 월드클래스 클로즈업매직을 보여준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대형 일루전부터 사람의 생각을 맞추는 멘털매직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신기한 마술뿐만 아니라 웃음과 감동을 함께 선사한다.

일시 2011년 5월 5일 **장소**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30퍼센트 할인 **문의** 1600-1716

윤복희 60주년 스페셜콘서트 청주공연 가수이자 뮤지컬배우인 윤복희는 자신의 노래에 대한 자신감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로 청중을 압도한다.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대상을 받았던 '여러분'을 비롯하여 '노래하는 곳에', '친구야' 등 명곡들을 불러왔다. 1976년 뮤지컬극장인 현대극장에 들어가 뮤지컬 1세대 배우로 살아왔다. 60여 년간 음악과 함께한 그녀의 음악세계에서 나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카리스마 있는 가창력과 뮤지컬로 다져온 화려한 무대매너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14일 **장소**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 **관람료**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문의** 043-278-2222, 1588-4446

사진 국립발레단

〈코펠리아〉

사진 엔키아

〈어둠 속의 대화〉

클래식 **조수미&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 뮤직** 최고의 고음악 오케스트라인 아카데미 오브 에인션트(AAM)와 금세기 최고의 디바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만났다.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데뷔한 조수미는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했고,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들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아왔다.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그녀가 25주년을 맞이하여 바로크 음악을 선보인다. 조수미와 정통 고음악의 원조의 협연으로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일시 2011년 5월 6일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25만원 S석 20만원 A석 15만원 B석 10만원 C석 5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1577-5266

정리·이미령 인턴기자

4월 넷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4월 10일~4월 16일

곡명	가수
1 LOVE SONG	빅뱅
2 거울아 거울아	4minute (포미닛)
3 STUPID LIAR	빅뱅
4 제발	김범수
5 직감	씨엔블루 (CNBLUE)
6 To Me (내게로..)	레인보우 (Rainbow)
7 방콕시티 (Bangkok City)	오렌지 카라멜
8 Heart To Heart	4minute (포미닛)
9 반짝반짝	걸스데이 (Girl's Day)
10 아파 아이야	양파

쉿! 백두산 호랑이, 백두대간에 온다

10월 중국서 한 쌍 기증… 동물원 위탁 후 2014년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조선DB

그동안 들어왔던 백두산 호랑이 두 쌍 중 암컷은 모두 종 번식을 못하고 폐사했다. 올해 들어오는 백두산 호랑이는 "자연친화적인 번식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백두산 호랑이 한쌍이 한국에 온다. 산림청은 지난 4월 20일, "생후 5년가량 된 백두산 호랑이 한 쌍이 올해 안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산림협력회의에서 '백두산 호랑이 종 보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한 것이다. 산림청은 오는 10월쯤 반입 예정인 백두산 호랑이를 일단 대형 동물원에 위탁 사육한 후 2014년 봉화군 춘양면 일원에 들어설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옮길 계획이다.

귀한 혈통 잇게 자연친화적인 번식 환경 제공

산림청 국제협력추진단의 한병윤씨는 "이번에 들어오는 호랑이는 백두산 인근 지역에서 생포한 호랑이 종을 번식해서 혈통을 보전한 것으로 순수 백두산 호랑이로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백두산 호랑이가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그동안 1994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암수 한 쌍('천지'와 '백두')을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이후 2005년 제5차 한중 산림협력회의 때 추가로 한 쌍('압록'과 '두만')을 기증받아 종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06년과 2010년 암컷인 '천지'와 '압록'이 각각 폐사하면서 번식에 실패했다. 현재 수컷인 '백두'와 '두만'이 남아 있지만 그마저도 늙어서 번식이 어려운 상황이다.

산림청 측은 "백두산 호랑이는 귀한 혈통인 만큼 자연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내 우리 면적을 확대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번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두산 호랑이가 안착하게 될 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이 사업비 2천5백15억원을 들여 5천1백7만제곱미터 면적에 조성하는 곳으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중 대표단은 제8차 한·중 산림협력회의에서 황사 발생 원인인 중국 사막화 방지 활동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중국 오르도스 사막의 생육에 적합한 식물상을 조사하고 방풍림 조성을 위한 조림기술을 공동연구하는 데 합의했다. 지린성 등 한반도 인접지역의 기후변화 취약 산림생물종 조사와 보존 연구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998년 6월 중국 국가임업국과 한중 임업협력 약정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오고 있다.

글·박근희 기자

인터넷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110 정부대표전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110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 110은 정부대표전화입니다.
• 317개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상담안내해 드립니다.
• 이제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상담내용

▶일반 민원 상담
전국 관공서 안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건축, 인·허가 절차, 민원 처리 기관 안내,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세금, 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연말정산 등

▶사회안전망 상담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상담 등

▶생계침해 신고 상담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금품 착취, 불공정 계약, 성 폭력 피해, 환경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110 서비스 안내

▶전화민원 "Happy Call" 서비스
기관에 연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드립니다.

▶수화상담 서비스
씨토크 영상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어상담 서비스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110 서비스
휴대전화로 110 모바일 웹페이지(m.110.go.kr)에 접속하시면 문자상담 예약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약상담 서비스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과 내용을 예약하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상담사가 전화를 드려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민원 "Call Back" 서비스
심야 및 공휴일, 기관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의하신 경우 근무일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민원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자상담 서비스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보내면 상담사가 문자메세지로 신속하게 문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110 이용안내

상담 시간 – 평일 : 오전 8시 ~ 밤 9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韓세상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미근동 257)

http://www.gojobs.go.kr

2011 공직채용 박람회

Public Service Job Fair

더 큰 대한민국!
당신이 만들어 갑니다.

2011
5.12[목] – 5.14[토]

코엑스 1층 전시장(Hall B1)

주최 행정안전부